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카리모프의 자주(自主) 외교정책: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과 탈퇴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유수포바 소히바

카리모프의 자주(自主) 외교정책: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과 탈퇴

지도교수 신 범 식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유수포바 소히바

유수포바 소히바의 석사학위论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원장	<u>김상배</u>	(인)
부위원장	<u>이정환</u>	(인)
위원	<u>신범식</u>	(인)

국 문 초 록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 전파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어느 한 국가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 사이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도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비교적 극단주의 이슬람 전파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 소련 해체 이후 신생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제일 중심부에 위치하고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차례 극단주의 위협을 겪었지만 국내외적으로 안보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었다. 집단안보 공동체 참여 등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카리모프 대통령이 추진한 외교정책은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분석할 의미가 있는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과 탈퇴를 분석한다. 한 국가가 같은 안보 공동체를 두 번씩 가입 및 탈퇴한 원인을 파악하고 각 가입과 탈퇴시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외교정책의 변곡점과 변화의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CSTO 가입과 탈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정책 변화를 3 가지 시기로 나눈다. 첫째, 1992-1999년 가입과 탈퇴시기, 둘째, 1999-2006년 재가입 시기, 셋째, 2006-2012년 재탈퇴 시기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과정 및 CSTO 가입과 탈퇴의 원인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한다. CSTO와 관련된 변덕스러운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그의 연설 및 언행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카리모프의 정책결정과정 및 CSTO 가입과 탈퇴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제정치인식(perspective on international politics) 사고 체계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하용출과 신범식이 제기하고 있는 이 체계는 국제정치 환경, 주체, 행위 등에 대한 의미연관의 틀이 특정행위자가 인지하는 국제적 현상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대응의 기초를 규정한다고 본다. 카리모프의 국제정치인식을 국제정치의 환경,

주체, 그리고 행위의 세 가지 사고유형을 통해 파악한다. CSTO 가입과 탈퇴에 있어서 카리모프 대통령의 질서 및 환경, 국가의 이미지 형성 및 위협에 대한 인식, 이에 따라 추진되었던 행위 및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외교정책 변화 과정의 요인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카리모프의 외교정책 방향 및 변덕스러운 정책의 기원을 모색한다. 시기 별 카리모프의 인식 분석 및 가입과 탈퇴 원인의 파악 이후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카리모프의 외교정책을 분석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입의 원인은 다르지만 첫 번째 탈퇴와 두 번째 탈퇴의 원인이 비슷하다는 점을 파악한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이 네 국면에서 일관적으로 카리모프가 자주외교정책을 펼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즈베키스탄이 자주적인 정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약소국이며 지역적 차원에서 중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 과정 및 특징을 확인했다. 조건에 따라 수동적이었다가 외부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능동성을 보여주는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은 중견국 외교 혹은, 약소국 외교정책 분석에 충분한 함의를 가져다준다.

주요어: 중앙아시아 안보, 자주외교정책, 극단주의 이슬람, 집단안보조약기구

학 번: 2015-23286

목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방법 및 자료	9
3.1.이론적 틀 및 자료	9
3.2.연구방법	11
4. 논문 구성	15
II. 소련붕괴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	18
1.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주요 개념 및 원칙	18
2. 군대 및 안보 개념의 수립	21
III. CSTO 가입과 탈퇴를 둘러싼 지도자의 환경인식, 위협인식 및 전략에 대한 시기별 분석	24
3.1. 1992-1999년 CST 가입 및 탈퇴 원인분석	24
3.1.1. 질서와 불안정성에 대한 지도자 인식 분석	24
3.1.2. 국가 이미지 형성 및 위협에 대한 지도자 인식	29
3.1.3. 환경과 위협 인식을 따른 안보전략 및 CST 탈퇴 원인 분석 ...	38
3.2. 1999-2006년 CSTO 탈퇴 시기 및 재가입 원인분석	42
3.2.1. 국제 및 지역 질서의 변화에 대한 지도자 인식	43
3.2.2. 안보위협에 대한 지도자 인식	49
3.2.3.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안보 전략 추진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CSTO 재가입 과정 분석	51
3.3. 2006-2012년 CSTO 가입 시기 및 결정적 탈퇴 원인 분석	64
3.3.1. 질서 및 지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도자 인식	64

3.3.2. CSTO 신속대응군에 대한 위협인식	67
3.3.3. 지도자 위협인식을 따른 다자주의 외교전략 선택 및 CSTO 탈퇴	72
IV. CSTO 가입과 탈퇴 원인 비교분석	76
V. 결론	82
참고문헌	85
Abstract	101

표 목차

<표 I>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 및 안보관련 주요 사건 연표	4
<표 II> 국제정치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질문들	13
<표 III> 카리모프 대통령 발언과 연설문 분석틀	14
<표 IV> 카리모프 대통령의 시기별 인식 및 분석	79
<표 V> 카리모프 인식에 따른 시기별 CSTO 가입과 탈퇴 원인	80

I. 서론

1. 문제제기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탄생한 5개국¹⁾은 강대국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이 지역을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추축(pivot) 지대”라고 불렀다.²⁾ 고대 실크로드시기부터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 이 지역에서 탄생한 국가들은 소련 체제에서 중앙정부에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소련이 무너진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을 했으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접하게 되었고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특히 소련시기부터 해결되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문제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접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독립이후 강대국들의 간섭과 극단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국가로 우즈베키스탄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슬람 인구가 80% 이상이어서, 극단주의 전파와 이슬람 국가의 형성에 취약할 수 있는 국가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에 직면한 우즈베키스탄은 극단주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진행하고, 그러한 싸움 속에서 주권에 대한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 노력을 해왔다. 중동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개입과 극단주의 세력들의 강화, 내전 등의 여러 문제들은 지역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을 들 수 있다. 독립 이후, 카리모프 대통

1)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2) Z. 브레진스키 지음,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2000) p.60.

령은 강대국의 과도한 개입을 배제하고 극단주의가 발호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이하 CSTO) 가입과 탈퇴 사례는 그의 자주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분석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중동과 비슷한 불안정한 상황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자력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부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³⁾은 1992년 5월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집단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 이하 CST)을 체결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여 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중 내륙국⁴⁾이며 지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1999년 2월에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의 반정부 테러 공격이 발생한다. 테러사건 이후의 지역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카리모프(Islom Karimov) 대통령은 1999년 4월에 CST 가입연장을 거부한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우즈베키스탄도 지역적 안보와 테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특히나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안보협력은 미국에게 중요한 정책이었고 그것은 우즈베키스탄에게도 기회가 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2년 3월에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DSPFC: Declaration on Strategic Partnership and Foundations of Cooperation)을 체결하여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인 우즈베키스탄의 카르시-하나바드(Karshi-Khanabad)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게끔 협의를 한다. 미국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접경지역의 안보 문제를

3)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4)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야 하는 국가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대미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2001년부터 소련 시기에 아랄해 부근 지역에서 실행되었던 생물무기 실험의 잔류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그 외에 미국 측에서 21백만 달러규모의 우즈벡 군대 지원 및 기자재 제공을 계획하였다. 미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가까워지면서 이에 러시아가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2002년에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CST를 CSTO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2004년 6월에 '전략적 제휴 협정'을 체결한다.

2005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안디잔(Andijon) 시에서 반정부 극단주의 세력들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국과 서구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미국에 빠른 시일 내 군사기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에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동맹 협정(TAR: Treaty on Allied Relations)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협정 체결 1년 뒤인 2006년에 CSTO에 재가입한다. 그리하여 우즈베키스탄은 다시 CSTO 회원국이 되었지만 안보기구의 협정과 결정(decision)들을 비준하지는 않았다. 특히 CSTO에서 형성될 예정이었던 신속대응군(CRRF: Collective Rapid Reaction Force)에 대해 카리모프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CSTO가 신속대응군을 형성해서 키르기스스탄에 배치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후 CST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010년 4월에 키르기스스탄에서 반정부 혁명이 일어났고 6월에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오쉬에서 우즈벡 민족과 키르기스 민족 간 분쟁 사태가 일어난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CSTO의 개입을 요청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비난하면서 CSTO가 동맹국들 간의 갈등을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조한다.⁵⁾ 결과

5) Ислам Каримов.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реформ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основной критерий развития нашей страны*,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11) pp. 134-135.

적으로 2012년에 CSTO 탈퇴를 요청하여 12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위와 같은 CSTO 가입과 탈퇴를 둘러싼 여러 사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CSTO에 대한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외교정책 변화를 나타낸다. 소련 붕괴 이후부터 2012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소수 있다고 해도 2차 자료에 기반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로 인해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 근접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책은 세계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국가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본다.

독립 이후부터 카리모프라는 최고 정책결정자가 25년을 집권하면서 이끌어왔던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 급격히 변화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구소련 및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협의체인 CST를 체결한다. 그러나 향후 1999년 해당 조약에서 탈퇴하고 2006년에 재가입을 한 이후 2012년에 다시 한 번 탈퇴하는 외교정책을 펼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이 CSTO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

〈표1〉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 및 안보관련 주요 사건 연표

년도	사례
1992년 5월	집단안보조약(CST) 체결(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996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 원칙에 대한 법” 제정
1999년 2월	타슈켄트 테러 사건 (내각, 내무부, 은행, 영화관: 13명 사망, 100명 이상 부상)
1999년 4월	우즈베키스탄 CST 탈퇴

2001년 6월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입
2001년 9월	미국 9/11 테러
2001년 10월	우즈베키스탄 내 미군 군사기지 배치
2002년 3월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간 전략적 제휴 협정 체결
2002년 10월	집단안보조약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로 변환(CST⇒CSTO)
2004년 3월	타슈켄트와 부하라 테러 사건 (3일간 연속 테러: 42명 사망, 50명 이상 부상)
2004년 6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전략적 제휴 협정 체결
2004년 7월	타슈켄트 테러 사건(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 앞, 대검찰청 건물 앞: 3명 사망, 8명 부상)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동부 지역 안디잔 사태(187명 사망)
2005년 10-11월	미군 군사기지 철수
2005년 11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간 동맹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
2006년 8월	CSTO 재가입 요청
2009년 7월	CSTO 신속대응군 창설 및 키르기스스탄 배치 요청
2010년 6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도시 오쉬 민족분쟁 사태
2012년 6월	우즈베키스탄 CSTO 탈퇴 요청
2012년 8월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 법” 제정
2012년 12월	우즈베키스탄 CSTO 공식 탈퇴

2. 선행연구 검토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 및 CSTO 탈퇴 원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강대국들의 영향에 따라 정책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역적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지도자의 의도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정책결정자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봉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를 시기별로 노선으로 나눈다.⁶⁾ 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은 세 가지 노선: 자주 노선(1991-1998), 친미 노선(1999-2003) 그리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는 복귀 노선(2004-)으로 나뉜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과 탈퇴를 두 강대국들 사이의 외교정책 노선 변화로 파악한다.

마를레네 라뤼엘(Marlène Laruelle)은 2012년에 우즈베키스탄이 CSTO를 탈퇴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⁷⁾ 첫째, 우즈베키스탄과 CSTO는 가치관과 원칙의 측면에서 충돌을 빚었으며 이 기구가 자발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탈퇴하게 되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CSTO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탈퇴를 결정했다. 셋째,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들이 CSTO 차원에서 신속대응군을 형성해서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 반발하여 우즈베키스탄이 CSTO를 탈퇴하였다고 본다.

티모시 크램브스(Timothy Krambs)는 라뤼엘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CSTO 탈퇴의 원인 중 하나가 이러한 신속대응군 형성이라고 보았고 동시에 또 다른 원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제시하였다.⁸⁾ 이를 통해 강대국 세력의 일방적인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2010년 키르기스스탄 도시인 오쉬에서 일어난 민족 분쟁 사건 이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외교정책을 변화시

6) 강봉구,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의 노선 전환 -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슬라브학보* Vol.22(1), (March 2007), pp. 47-75.

7) Marlène Laruelle, “Factoring the Regional Impact of Uzbekistan’s Withdrawal from the CSTO,” *GMF Foreign Policy and Civil Society Program*, (August 2012).

8) Timothy A Krambs, “Central Asia and the Afghanistan Security Dilemma: Amelioration, Retrograde, or Status Quo? Central Asia’s Role in Regional Security Regarding Afghanistan after 2014.” *Connections: The Quarterly Journal*, Vol.12(2):1, (Spring 2013), pp.1-26.

켰다는 논문도 있다.⁹⁾ 피터 던컨(Peter Duncan)도 이와 같은 외교정책 변화는 우즈베키스탄이 강대국들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설명한다.¹⁰⁾

마테오 푸마갈리(Matteo Fumagalli)는 우즈베키스탄의 1999년 첫 번째 탈퇴 이후 재가입을 설명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한다.¹¹⁾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즈베키스탄의 민주주의 개혁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압력을 가하면서 국내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CSTO에 재가입을 했다고 본다.

러시아 학자 이바노프(I. Ivanov)는 우즈베키스탄이 변덕스러운 외교정책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동맹 국가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중요성과 우즈베키스탄 주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적 통합과는 거리를 두는 정책을 활용했다고 한다.¹²⁾ 오구르초프(M. Ogurtsov)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한다.¹³⁾

9) Eric McGlinchey, "Foreign Policy and Aging Central Asian Autocrats." *Demokratizatsiya*, Vol.20 (3):262, (July 2012), pp. 262-267.

10) Peter J.S. Duncan, "Russia, Nato and the 'War on Terro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entral Asia after September 2001 in Tanrisever, OF, (ed.)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NATO's Role in Regional Security since 9/11*, (IOS Press 2013), pp. 129-142.

11) Matteo Fumagalli, "Alignments and Realignment in Central Asia: The Rationale and Implications of Uzbekistan's Rapprochement with Russ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28 (3), (June 2007(a)), pp.253.

12) Игорь Иванов,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одержание, перспективы, ограничители,"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Москва*, No.10, (2013)

13) Максим Огурцов, *"Эволюц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тратегий России и США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на рубеже XX-XXI веков"*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15.

자비홀라 사이포프(Zabikhulla Saipov)는 우즈베키스탄은 CSTO의 신속대응군에 합류했다면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계속해서 남게 되었을 것이고, 반면에 미국과 협력하여 자국 내 미군 배치를 허락하게 되면 중국, 이란 및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 분야에서 협력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¹⁴⁾ 그러한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결정적으로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CSTO를 탈퇴했다고 한다. 상기 주장과 같이 파르호드 톨리포프(Farkhod Tolipov)도 2012년에 우즈베키스탄이 다자주의 외교를 강조하는 ‘국가 외교정책 개념’을 선도하면서 이에 따라 CSTO 탈퇴를 선택했다고 한다.¹⁵⁾

알렉산드르 피칼로프(Alexandr Pikalov)의 연구에는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 변화의 성격과 원인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¹⁶⁾ 그는 외교정책 변화를 세력균형이나 편승, 위협균형, 쏠균형(omnibalancing), 다자주의 등의 여러 이론을 통해서 검토한다. 특히 피칼로프는 외교정책 변화에 외부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들도 검토해야 함을 역설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카리모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외교정책 변화를 통해서 본인의 생존을 지키려고 함과 동시에 국익 또한 우선시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는 지정학적 위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 국익과 지정학적 위치가 국가 이익과 독립을 보전할

14)Zabikhulla S. Saipov, "New Foreign Policy Strategy Paper Codifies Uzbekistan's Reluctance toward Restrictive Alliances," *Eurasia Daily Monitor*, Vol. 9, No.153, (August 2012(b)) <https://jamestown.org/program/new-foreign-policy-strategy-paper-codifies-uzbekistans-reluctance-toward-restrictive-alliances> (검색일: 2016년 11월 25일)

15)Farkhod Tolipov, "Uzbekistan's New Foreign Policy Concept: No Base, No Blocks but National Interests First,"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Vol. 9, (May 2012), <http://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2557-analytical-articles-caci-analyst-2012-9-5-art-12557.html>

16)Aleksandr Pikalov, "Uzbekistan between the Great Powers: A Balancing Act or a Multi-Vectorial Approach?," *Central Asian Survey*, (July 2014), pp. 1-15.

수 있는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국내적 요인 및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레일라 카제미(Leila Kazemi)는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은 주권의 강화, 경제적 개혁과 국내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했던 카리모프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⁷⁾ 그러나 카제미는 카리모프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의 행위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베르나르도 파젠다이로(Bernardo Fazendeiro)는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성격을 “방어적 자기의존”(defensive self-reliance)이라고 정의하여, 카리모프의 통치 하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교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⁸⁾ 그러나 파젠다이로는 CSTO 가입과 탈퇴보다는 전반적 외교정책 성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외교정책 변화과정 설명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CSTO 가입과 탈퇴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를 대외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적 요소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지만 정책결정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연구가 부채하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 변화는 국내적 요소와 대외적 요소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 특성 상 국내외 상황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결정자가 국내적, 국제적 안보 위기 상황을 외교정책을 통해 풀어나가려고 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자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을 목표로 한다.

3. 연구방법 및 자료

17) Leila Kazemi, "Domestic Sources of Uzbekistan's Foreign Policy, 1991 to the Pres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6, No.2, (April 2003), pp. 205-216.

18) Bernardo Teles Fazendeiro, "Uzbekistan's Defensive Self-Reliance: Karimov's Foreign Policy Legacy," *International Affairs*, Vol. 93, No.2, (January 2017), pp. 409-427.

3.1. 이론적 틀 및 자료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분석수준을 선정해야 한다. 외교정책 결정요인은 국제체제 수준이나 국가-사회 수준, 정책 집단 수준, 정책결정자 수준 등의 여러 분석수준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¹⁹⁾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인과 행위자는 다양하며 대통령, 국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국내와 국제 이슈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자 수준의 결정요인은 정책결정자의 심리상태, 생물학적 특성, 성격, 인식구조 등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명제를 주된 논지로 삼는다.²⁰⁾

소련 붕괴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소련붕괴 이후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집권을 하였고 국가 건설 과정 및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정책결정자 역할을 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집권기 정책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는 시점인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을 이슬람 국가로 변환시키겠다는 세력들이 나만간(Namangan) 시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카리모프는 그 세력들과 만나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신생 국가에서 그들의 종교적 역할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카리모프는 그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를 극단주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했다. 카리모프는 그 시기에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국내외 정책을 통해 국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영형은 “카리모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분배하지 못했지만, 강력한 중앙 권력에 기초된 국가질서 유지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

19) 김계동 외, 『현대의외교정책론』, (서울:명인문화사) 제 2판.

20) 『현대의외교정책론』, (서울:명인문화사) 제 2판. pp. 42

다.²¹⁾ 카리모프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정책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해졌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8월 31일 독립을 선언한 이후 소련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 건설 과정을 시작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통치 하에 국가의 국내외 정책이 결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카리모프 대통령은 상호 대체 가능한(interchangeable) 것이다.”²²⁾ “카리모프는 사실상 국가 외교정책의 대변인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을 정당화할 개념적 틀을 제시했다.”²³⁾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과정 및 CSTO 가입과 탈퇴의 원인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CSTO와 관련된 변덕스러운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그의 연설 및 언행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부터 CSTO를 마지막으로 탈퇴한 2012년까지 카리모프라는 지도자가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보 기구를 두 번 가입하고 탈퇴한 이유를 밝히는 데 있어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언행과 연설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외교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공식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므로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통령 연설문 내용과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모든 국내와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발언한 내용은 매년 독립기념일 이전에 연설집으로 만들어졌다. 카리모프의 연설집들은 단순한 연설문들의 모음이 아니라 중요한 국제정치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카리모프 정권 시기의 모든 연설문의 내용이 분석될 것이다.

3.2. 연구 방법

21)이영형,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카리모프(I.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과정, 결과, 의미," *중소연구*, Vol. 39, No.2, (August 2015), pp. 261.

22)Bernardo Teles Fazendeiro, 2017, pp. 409-427.

23)Leila Kazemi, 2003, pp. 205-216.

담론은 특정한 가치와 이념이 언어적 형태로 조직화된 것이다.²⁴⁾ 담론은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론은 정치적 도구 또한, 권력이나 이념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권력을 강화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를 대상으로 언행과 연설 내용을 분석하면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을 결정했던 배경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카리모프의 정책결정과정 및 CSTO 가입과 탈퇴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제정치인식(perspective on international politics) 사고 체계를 확인한다. 하용출과 신범식이 제기하고 있는 체계는 국제정치 환경, 주체, 행위 등에 대한 의미연관의 틀이 특정행위자가 인지하는 국제적 현상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대응의 기초를 규정한다고 본다.²⁵⁾ 카리모프의 국제정치인식을 3가지로 나누면, 국제정치의 환경과 주체, 그리고 행위가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사고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카리모프라는 리더의 연설문과 발언 내용 분석을 통해 카리모프가 국제정치 주체로서 국제정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독립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체를 보는 인식과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과 위협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제와 위협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정치 환경 및 지역적 환경의 변화 및 위협과 적에 대한 인식을 따른 행위를 설명하려고 한다. 하용출과 신범식은 〈표2〉에서 국제정치학자 왈츠(Waltz)의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의 주요 논점을 재구성해서 〈표2〉와 같은 질문 틀을 통해 국제정치인식을 확인하는 시도를 한다.²⁶⁾

24) Ruth Wodak, "Aspect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Zeitschrift für Angewandte Linguistik*, Vol. 36, No.10, (2002), pp. 5-31.

25) 하용출, 신범식, "탈냉전기 러시아 국제정치인식의 이론구성적 이해(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Politics in Post-Soviet Russia: From a Viewpoi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Building),"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28, No.1, (April 2010), p. 179.

〈표2〉 국제정치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질문들²⁷⁾

인식의 수준과 대상		질문의 내용	
국제정치 환경	질서	탈냉전 세계에 질서는 존재하는가? 탈냉전의 세계는 안정적인가?	Q 1
	불안정성	질서형성의 저항요인은 무엇인가? 세계적 불안정성의 근원은 무엇인가?	Q 2
국제정치 주체	정체성	누가 국제무대의 주된 행위자인가? 행위자로서 자국에 대한 이미지(self-image)는?	Q 3
	적/위협 인식	누가 자국의 주된 적이며, 자국 안보에 대한 주된 위협은 무엇인가?	Q 4
국제정치 행위 양식	전략	자국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은 무엇인가?	Q 5
	영향력, 수단	국제정치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중요한 수단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Q 6

이와 같은 질문들을 구성한 학자들은 탈냉전 러시아의 국제정치 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대입하면, 첫째,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의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질서 변화 및 지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련붕괴 이후의 세계가 안정적인지를 분석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신생독립국가였기 때문에 카리모프는 국가 및 지역안보에 대한 우려가 깊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카리모프가 인식하는 세계적 및 지역적 불안정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적 집단안보기구인 CSTO에 대한 인식 및 동 기구를 가입과 탈퇴했던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 카리모프 대통령이 자국을 어떤 이미지로 보는 것인지 확인한다. 독립 이후에 국가 건설 과정에서 카리모프가 강조했던 자국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한 국제무대에서 자국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석하여 카리모프가 국제무대, 또한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이 외교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자국의 적과 위협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카리모프의 연설

26) 하용출, 신범식, 2010, p. 179.

27) 하용출, 신범식, 2010, p. 179.

문에서 나타나는 적의 인식과 위협요소들의 인식을 통해 지도자가 국내외 정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자국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안보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신생독립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안보가 소련으로부터 벗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적을 대처하기 위해 구축한 안보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카리모프가 통치하는 우즈베키스탄이 국제정치 환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역사, 문화,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고유한 역사,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외 정책을 구성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의 통합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이 때 우즈베키스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심부로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 혹은 현상유지 논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지정학적 위치와 영향력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통합에 효과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권력을 배분한 것이다.

〈표3〉 카리모프 대통령 발언과 연설문 분석틀

인식의 수준과 대상		질문의 내용	질문
국제정치 환경	질서	탈냉전 시기 세계질서 및 지역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탈냉전 세계는 안정적인가?	1
	불안정성	지역안보의 저항요인은 무엇인가? 세계적 및 지역적 불안정성의 근원이 무엇인가?	2
국제정치 주체	정체성	누가 국제무대의 주된 행위자인가? 정책결정자로서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대외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3

	적/위협 인식	안보에 대한 위협이 무엇이며 국가의 적은 어떤 세력인가?	4
국제정치 행위양식	전략	가장 적합한 안보전략은 무엇인가?	5
	영향력. 수단	국제정치에서 국가로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지정학적 위치, 역사, 군사 등)	6

위와 같은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속에서 찾고자 한다.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인식, 자국의 이미지 형성, 자국의 적이 누구이며, 위협요소가 무엇인지, 자국에 적합한 안보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등을 연설문 속 내용으로 확인함으로써 CSTO를 가입 및 탈퇴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첫 번째 탈퇴와 두 번째 탈퇴 시기의 대통령 연설과 인터뷰 내용을 비교하여 두 번의 탈퇴에 공통점이나 연속성이 있는지도 확인하려고 한다.

4. 논문의 구성

카리모프의 외교정책은 강대국들 사이의 균형 혹은 강대국들의 간의 게임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었을까? CSTO도 그러한 외교정책 변화 때문에 가입 및 탈퇴했을까? 독립 이후부터 CSTO에서의 마지막 탈퇴를 단행했던 2012년까지 외교정책의 변화는 카리모프가 생각했던 국가 이익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확보해야 했던 국가 정체성 및 국가의 독립성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본다. 카리모프에게 중요했던 것은 국가의 주권 및 독립성을 보전하는 것이었고 가장 큰 위협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극단주의 세력들이었다. 그리하여 카리모프는 국가 건설 과정에서 군사-기술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국가의 독립성 이념을 구축하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라 본다. CSTO 가입과 탈퇴는 친러-친미-친러 외교정책변화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카리모프의 목표와 위협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외교정책의 주요 개념 및 원칙,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군대와 안보 개념의 수립, 군사력 강화와 연관된 정책을 확인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보기구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군사력과 군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뿐만 아니라 소련시기에 자주적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던 소련 자치공화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자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외교정책을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 주요 목표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 국제정치 환경, 주체, 행위에 관한 질문들에 답을 찾기 위해 소련붕괴 이후 1992-1999년 간 국제정치적 환경을 분석한 후에 카리모프 연설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카리모프가 중요시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체성 및 안보 위협요소를 분석한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였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본다. 연설문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과 국내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1992년 CST 가입 원인과 1999년 CST 탈퇴 원인을 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통해 위협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도 알아본다. 이를 위해 수단이었던 ‘마나비야트’라는 윤리 교육(spiritual education)에 대한 정책을 확인한다.

세 번째 파트에서 CSTO 탈퇴 이후 1999-2006년간 외교정책의 방향과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본 파트에서도 세계적 또한 지역적 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를 목격한 카리모프 대통령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할 및 외교정책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이념 수립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검토한다.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변화된 안보전략과 효과적인 안보체계를 추구

하기 위해 새롭게 정립한 SCO와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를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한 CSTO 재가입 원인을 밝힌다.

네 번째 파트에서 CSTO를 재가입 하게 된 2006-2012년 사이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환경 및 질서 변화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재가입을 한 우즈베키스탄이 다시 한 번 탈퇴하기 된 원인을 카리모프의 연설 속에서 모색한다. 카리모프의 CSTO 신속대응군 형성 및 활동에 대한 평가, 2010년 키르기스스탄과의 국경 도시에서 벌어진 우즈베크 민족 분쟁 사태에 대한 카리모프의 발언을 기반으로 삼아 카리모프가 선택하게 된 국가의 외교정책 전략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온 분석 결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과 탈퇴 원인을 비교한다. 각 시기별 카리모프 대통령의 CSTO 가입과 탈퇴에 있어서 질서 및 환경, 국가의 이미지 형성 및 위협에 대한 인식, 이에 따라 추진되었던 행위 및 전략을 분석하고 첫 번째 가입과 두 번째 가입의 원인 비교, 첫 번째 탈퇴와 두 번째 탈퇴 원인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외교정책 변화 과정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상황 속에서 카리모프의 외교정책 방향 및 변덕스러운 정책의 기원을 모색한다.

II. 소련 붕괴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1.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주요 개념 및 원칙

소련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독립적인 외교정책 및 외교노선을 구축해야 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 변화 과정 및 원인들을 분석하기 전에 독립 이후 외교정책이 형성되었던 배경 및 정책의 주요 개념과 원칙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약 70년간 소련에 속해 중앙정부의 결정을 따른 국가가 처음으로 외교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중내륙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남쪽에 아프가니스탄을 접하고 있는 이 국가는 여러 측면에서 외교정책을 충실히 구축해야 했다.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교정책을 배우는 기관이나 학교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외교정책을 처음부터 설계해야 했다. 이는 외교정책 전략에 따라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전략은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에 따라 형성되었다. 첫째, 상호 이익을 고려한 국가 이익의 우월성이다. 둘째, 평등성과 상호 이익, 다른 국가 국내 상황에 대한 미개입이며, 이는 국가들 간의 주권의 독립성을 보전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이념적 견해에 구애받지 않는 협력을 위한 개방, 보편적 가치에 대한 순응, 평화, 안정성 및 안보보장이다. 넷째, 국제법의 국가법에 대한 우월성이다. 이것은 국내에 헌법은 존재하지만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양자 및 다자간 대외관계 발전을 선언하고 있다.²⁸⁾ 국가 외교정책에 대한 주요 원칙과

28) Ислам Каримов, *Узбекистан на пороге XX века: угрозы безопасности, условия и гарантии прогресс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1997(a)), pp. 287-288.

방안들은 우즈베키스탄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관계의 본격적인 주체이다. 그 외교정책은 주권 평등, 무력 미사용과 힘의 미사용, 국경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타국 국내정치 미개입 등 보편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국제법의 원칙 등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공화국은 동맹을 맺고 연방 및 기타 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국민들의 최대 이익, 국민들의 복지 및 안전에 기초하여 그 단체 및 연합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²⁹⁾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는 국가 독립성과 주권의 지속적인 강화이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역할과 위상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국가와 지역안보 보장을 위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수립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목표는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향한 진보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 목표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 이익에 입각한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균형 잡힌 외교정책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주권 원칙의 존중, 영토 보전 및 내부 문제에 대한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이나 강제 사용 위협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규범 및 원칙에 기초하여 타국과 동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이상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1996년에 제정된 “외교정책 원칙에 대한 법”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16년 이후 2012년에 새로운 “국가 외교정책 개념”이 제정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법이 무효화되며,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원칙들이 추가되었다.

29)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1992), 제12조, http://lex.uz/pages/GetAct.aspx?lact_id=35869 (검색일: 2017년 11월 10일)

2012년 제정된 외교정책 개념은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외교 전략을 국제사회에 공개했다. 기존의 법과 다른 점은 이 개념은 4가지 “no”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타국 군사기지의 영토 내 설치를 금지하는 것, 즉 동맹 국가가 요청하더라도 타국 군 기지를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이 국내에 미국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원칙을 통해 외국의 군사기지 배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 둘째,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이것은 인접지역 혹은 국제 수준의 군사 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우즈베키스탄 군대가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은 군사 블록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기존 법령은 타국가 군사기지 배치나 군사적 활동 참여, 혹은 집단군사동맹 가입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2012년에 제정된 새로운 외교정책 개념은 이것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규범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 서로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외부 세력들의 배제를 규정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한층 더 다자주의 외교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면서 국가의 변화된 대외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여러 강대국들의 목표가 되었던 이 국가는 여러 측면에서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연구자 중에는 카리모프의 외교정책의 변화를 “Uzbek card” 이라고 부르며, 우즈베키스탄은 강대국들 사이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³⁰⁾ 친러시아, 또는 친서구 외교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이 균형을 있는 외교정책을 하려고 했다는 학자도 있다³¹⁾.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외교정책

30) Robert Schaefer, and Whitney Alasdair, “The Uzbek Wild Card in the New Great Game in Central Asia.”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Vol. 4, No.2 (2015), pp. 291-308.

31) 강봉구, 2007, pp. 47-75

변화 및 CST 가입과 탈퇴 원인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 정책을 펼쳤는지,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이 선택한 외교정책의 방향이 친러시아, 친미(美) 등의 단계와 시기로 나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2. 군대 및 안보 개념의 수립

5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중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여러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등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교두보로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통해 역사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통해 신생독립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국가안보와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국가안보원(National Security Service) 설립에 대한 법령을 신설했고 바로 1992년에 군대를 조직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군대와 군사기지는 소련시기에 사용되었던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존 소련 시기의 훈련과 교육 등과는 다르게 군대의 전반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했다. 육군, 공군, 해군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과 기관들이 새로 만들어졌고 국가 GDP의 5%를 군사력 강화를 위해 활용했다. 1993년에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에 군사무선전자공학과가 개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4년에 지자크(Jizzax)주에 고등 군사항공학교가 설립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에서 남기고 간 기술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사 훈련 기반을 재정비하여 전반적으로 새로운 군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1995년 우즈베키스탄 군사 독트린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국군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프가니스탄에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타지키스탄에서 1992년부터 내전이 시작되는 등 신생독립국가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

스탄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했다.

Global Firepower³²⁾ 자료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군사력은 세계 국가들 중에 48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³³⁾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군대의 규모와 군사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 통계 자료에 군인 수와 군사 장비 종류 및 규모,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군사력은 1위를 차지하고 CIS 국가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군사예산은 연간 6000-7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GNP의 약 7%에 달하는 숫자다. 이는 정부가 그만큼 군사력 강화를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리모프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큰 위협으로 간주한 것은 국내 차원에서 극단주의 이슬람과 테러리즘이며, 국외 차원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이었다. 또한, 외부 세력들의 국내 정치와 정책 개입이 2003-2005년까지 우크라이나, 조지아와 키르기스스탄 등 구소련 3개국에서 발생한 색깔혁명과 같은 혁명을 우즈베키스탄에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에서의 내전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안보 강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타지키스탄 내전이 반정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을 강화시켰고 그 세력들로 인해 1999년에 타슈켄트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1990년부터 소련의 우즈베크 공화국에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지만 카리모프의 등장으로 인해 실패했었다. 독립 이후에 카리모프는 그 세력들과의 지속적인 싸움을 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함께 “테러, 정치적, 종교적 극단주의, 초국적 조직범죄 등 안보와 안정성 위협 방지를 위한

32) GFP는 130개국의 군사력에 관한 조사 자료를 공개하는 공식웹사이트이다. 순위는 국가의 육군, 공군 및 해군 잠재력 평가는 물론, 군사력을 위해 배정되는 예산 규모, 자원 등 50개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33) “2017 Uzbekistan Military Strength”,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uzbekistan (검색일: 2017.10.25.)

공동 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책임자가 선정되어 협력을 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군대와 군사 기술의 특성상 한계점이 다수 노출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군사 기술 협력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국가들의 군사력이 소련 군대를 바탕으로 구축되었고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많은 측면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군사적 협력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III. CSTO 가입과 탈퇴를 둘러싼 지도자의 환경인식, 위협인식 및 전략에 대한 시기별 분석

3.1. 1992-1999년 CST 가입 및 탈퇴 원인분석

1992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가 및 러시아와 함께 집단안보협의체인 CST를 체결한다. 그러나 1999년 4월에 동 조약의 연장을 거부한다. 1992년에 신생독립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1999년에 어떤 이유로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았는지를 1992-1999년 간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카리모프가 진행했던 국가건설 과정에서 그가 단행한 적과 위협에 대한 판단을 검토하고 어떠한 국가 이미지의 형성을 추진했는지 고찰한다. 이 시기에 카리모프의 환경 조건, 위협 및 국가건설에 관한 인식에 따라 안보조약 가입과 탈퇴 원인을 확인한다.

3.1.1. 질서와 불안정성에 대한 지도자 인식 분석

소련 해체 이후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가건설 과정에 들어서 새로운 세계질서 및 불안정성의 새로운 요소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을 펼친다. 그의 주된 목적은 많은 측면에서 소련과 다른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다극체제의 형성 및 지역적 불안정성 속에서 카리모프는 자신만의 자주적인 국내외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카리모프가 본 타지키스탄 내전, 러시아에서의 불안정성 등의 사례와 사건들이 파악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91년 12월 25일에 고르바초프의 연설과 함께 해체되었다.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에 15개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냉전은 종료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질서 및 구소련 지역 질서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민주주의 진영은 공산주의 진영에 승리했지만 그 후 극단주의 이슬람과 세속적 민주주의 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 저서에서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념적,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일 것이다³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서양과 동양 문명 간의 대결, 이슬람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아닌 문명들 간의 경쟁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그는 90년대 및 2000년대에 들어서서 발생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과 대결을 예측한 것이다.

탈냉전 시기 테러리즘 네트워크의 중심인 ‘알카에다’(Al-Qaeda)가 나타나 전세계에 걸쳐 극단주의 이슬람 및 테러를 전파시킨다. 극단주의 세력들은 미국에 대한 성전(jihad)을 시작한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라고 불리는 두 강대국의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대결이 존재했다면 탈냉전 시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대결과 위협이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세계적인 불안정은 구소련 15개국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의 우선적인 과제는 자체적인 정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 건설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다. 발트 3국과 조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국³⁵⁾은 1991년 12월 21일에 알마티 선언을 통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형성한다. CIS는 구소련 국가들의 새로운 연합이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은 했지만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각 국가는 특정한 분야에서만 개발되어 있었다. 소련은 각 자치 공화국에 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나누었고 공화국별로 특정한 분야를 발전시켰다. 우즈베키스탄도 식량이나 목화와 같은 특정 자원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했었다. 또한, 공산주의 이념의

34)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 Samuel P. Huntington, (New York : Simon & Schuster, 1996) p. 21.

35)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공식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와 투르크메니스탄은 비공식 참관국이다.

몰락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했던 이념과 종교적인 가치들이 되살아나면서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흥하였고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타지키스탄에서 내전이 발생하였다. 타지키스탄 내전은 1992년에 타지키스탄 민주당, 이슬람 부흥당 및 공산주의 엘리트 그룹 간의 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1997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다. 이 내전에서 8-13만 명이 희생되었다. 타지키스탄 내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큰 안보 문제가 되었다. 중립을 선언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2년 5월 12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구소련 국가들³⁶⁾과 함께 타슈켄트에서 CST를 체결한다. 1993년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벨라루스도 조약에 가입했다.

우즈베키스탄의 1992년 CST 가입은 안보를 보장할 자주적인 군대와 군사력이 부재했고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력도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지역적인 불안정 속에서 신생독립국들은 더 이상 소련에 의존할 수 없어 안보협약체인 CST를 체결한 것이다. 강봉구도 “타슈켄트가 모스크바 주도의 이 집단안보조약에 가입한 이유는 러시아의 영향력 견제 목적과 일견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초기 국가형성기의 국가안보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과제가 더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³⁷⁾고 주장한다.

본 연구 분석들의 환경, 질서 및 불안정성에 따른 지도자 인식을 분석하고 첫 번째 시기의 가입과 탈퇴 원인을 확인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안보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CST를 체결했다. 이 조약은 카리모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시작되었다. 카리모프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91년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 위치한 나만간(Namangan) 시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아돌라트(Adolat)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아돌라트는 나만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 이슬람의 샤리아에 기반을 둔 법칙 및 규범들에 따른 국가를 구축하고 이슬람을 국교로 인정하여 우즈베키스탄을

36)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37) 강봉구, 2007, p.60.

이슬람 국가로 형성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 상황에서 카리모프는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무슬림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국민들이 이슬람화를 원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따르겠다고 발언했다.³⁸⁾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종교적 제한이 사라졌고 극단주의 단체들이 이에 힘입어 세력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은 위태한 상황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군사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집단 안보의 필요성도 이 때 파악하여 CST를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9월 28일 UN 총회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탈냉전 시기의 세계 질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냉전 시기에 있었던 동양과 서양 간의 이념적 편협함(нетолерантность)이 냉전 종식 이후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편협함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³⁹⁾

카리모프 대통령은 탈냉전 시기의 세계가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질서에서의 균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소련 붕괴 이후에는 새롭고, 훨씬 어렵고 불안정한 시기가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주요 강대국들이 존재했고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이념적 체제, 두 개의 블록이 존재했다. 세계 안보는 두 블록의 균형에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세계질서에서 이 균형은 파괴되었다. 세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분할을 했다. 이제는 세계가 다극화되었다”⁴⁰⁾고 한다.

카리모프가 보는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카리모프는 소련의 붕괴를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소련은 카리모프에게 안정적인 체제로 인식되었는가?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국가들과 CST를 체결하였는가?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5년 7월에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

38) 카리모프 대통령의 1991년 나만간 발언: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qf_8zGlrMg

39) 이슬람 카리모프, *Наша цель свободная и процветающая Родина*,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1996(b)), p. 54.

40) 이슬람 카리모프, *Родина - священна для каждого*.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1996(a)), p. 34.

eta) 인터뷰에서 “소련의 붕괴에 우즈베키스탄은 기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주권 확립을 위한 요구(парад)를 하지 않았다”⁴¹⁾는 발언을 한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소련 붕괴 전에 고르바초프가 모든 공화국 대표들을 모아서 논의를 했었어야 했다고 그를 비난한다. 그렇지만 카리모프는 소련이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가 소련 붕괴 이전부터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1989년 10월에 우즈베크어를 국어로 지정해서 “모국어가 국민들을 통합시킨다”⁴²⁾고 언급했었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독립성 개념을 인지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소련 붕괴 이후 지역 정세를 평가하면서, 카리모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만 대규모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이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악화된 점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카리모프 대통령은 탈냉전 시기의 지역 환경이 소련 시기보다 불안정하다고 보면서 구소련 지역이 아닌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시한다.

1997년 타지키스탄 내전이 종결된 이후 타지키스탄 근본주의 세력들과 함께 있었던 페르가나 계곡 근본주의자들은 카리모프 정부에 저항하는 성전을 시작하기 위해 1998년에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을 형성한다. 그들은 1999년 2월에 타슈켄트 내각 건물, 내무부, 은행, 영화관에서 테러 사건을 저질렀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카리모프로 하여금 안보 정책 및 이념 교육 정책을 강화하게 만들었다. 타슈켄트 테러 사건에 대해 카리모프는 극단주의자들이 종교의 이름을 이용해서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노력들을 방해한다고 했다.⁴³⁾ CST는 타슈켄트 테러 사건 및 극단주의

41)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a), p. 128. (1995년 7월 7일 “러시아 신문” 인터뷰)

42) Ислам Каримов, *Узбекистан на пороге достиж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1(a), p. 45.

43) Ислам Каримов, *Наша высшая цель-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процветание Родины, свобода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народ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0), pp. 19-20.

세력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효과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것 또한 1999년 4월에 우즈베키스탄의 CST 탈퇴 원인이 되었다. 안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카리모프는 대외 이미지를 형성하고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3.1.2. 국가 이미지 형성 및 위협에 대한 지도자 인식

독립 이후 1992-1999년 사이 카리모프가 지적했던 주요 위협 인식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소련의 부활’이라는 위협 인식이며, 두 번째는 타지키스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문제이다. 소련이라는 연방이 사라졌지만 소련 내에 다시 연방을 형성하려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러시아에서 소련 재건을 계획하고 있었다.⁴⁴⁾

1990년대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모든 구소련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주요 정책은 “탈이념화”(de-ideologization), 즉 “탈공산화”였다.⁴⁵⁾ 우즈베키스탄의 최종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 대통령에게도 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그는 공산주의 이념을 “독살된 이데올로기”라고 불렀다. 구소련 국가들은 CIS를 형성하긴 했지만, 카리모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견제하려고 했다.⁴⁶⁾ 카리모프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급격히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혼란과 공백이 생겼거나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국가의 안보 정책이 아무리 탄탄하고 군사력이 강해도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본주의 전파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부족했던 윤리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함께 소련 시기의 종교적 억압으로 인한

44) Ислам Каримов, *По пути созида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1996(c)), p. 78.

45) Ji-Eun Lee, "The Non-Institutional Factor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Uzbekista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3, No.2, (June 2010(b)), pp. 125-141.

46) Leila Kazemi, 2003, pp. 205-216.

근본주의 세력들의 분노와 반발이 존재했다. 그래서 카리모프는 이웃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소련 시기 이전부터 종교적 측면에서 이슬람의 역할이 컸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근본주의 이념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국민들의 윤리 교육에 관한 정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국가의 위대한 역사를 되살리려고 했고 러시아 중심의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에 위치해 동서양을 연결시켰던 교두보 역할 했다는 역사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많은 학자들(Avicenna, Al-Khorezmi, Beruni, Ulugbek 등)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고향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탄탄하게 구축하려고 했다.⁴⁷⁾

1994년 4월 23일에 카리모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나비야트와 마리파트’(Manaviyat va marifat: 국민정신, 윤리 교육)라는 국립사회센터가 형성되었다. 이어서 상기 센터 활동 활성화에 대한 법령(1996년)과 마나비야트 센터 지원에 대한 법령(1999년)이 제정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마나비야트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이념과 국민들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우즈벡’으로서 자존심 및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 수차례 반복하여 연설한다. 카리모프는 전쟁의 원인을 교육과 문화, 이념의 부재로부터 찾는다.⁴⁸⁾ 마나비야트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정신과 지성의 통합이다. 이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윤리적 가치관, 문화라는 의미도 있다. 이 개념은 사람의 사회 문화에 기반을 두며, 삶의 사회경제적 형성, 개혁, 진전이나 후퇴를 결정한다. 마나비야트는 문화, 윤리라는 개념과 거의 동일하고 이념과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리모프 대통령이 동시에 강조했던 “국가의 독립성 이념”과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 새로운 독립적인 이념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도 작동해야 했다. 카리모프는 국가의 독립 이념은

47) Ислам Каримов, *Свое будущее мы строим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1999(b), p. 87.

48)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9(b), pp. 83-87.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는 많은 민족들의 진보적 마나비야트 전통, 세 계관 및 정치적 문화를 기반으로 두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로서 1997년 국가인재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이러한 국가인재양성 프로그램의 도입도 마나비야트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과서와 교육기관을 통해 마나비야트 프로파간다를 추진하였고 주민 자치 공동체인 마할라(mahalla)를 통한 접근도 이루어졌다.

카리모프는 극단주의 세력들의 강화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발언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다. “국가의 독립성 강화 과제, 안보 보장 과제들은 정신과 연관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문제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국민들의 마나비야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들을, 특히 젊은 세대를 마나비야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카리모프는 마나비야트 교육을 통해 탈공산화도 이룰 수 있고 극단주의 세력들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 1999년 테러 사건 당시에도 근본주의자들과 싸움을 진행하기 위해 독립성 이념과 마나비야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산주의 이념과 극단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독립 이후 카리모프는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들과 동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존 소련 방식의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반복한다. 카리모프에게는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이 중요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국제관계를 꼼꼼히 고려했다. 학자들은 1991-1999년 시기를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자주 노선기라고 부르기도 했고⁵⁰⁾, 러시아에서 독립하고 대안을 찾는 노선을 추진했다고 보기도 한다.⁵¹⁾ 실제로 카리모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잠재

49)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c), p. 123.

50) 강봉구, 2007, pp. 47-75

51) Dina Rome Spechler, and Martin C. Spechler, "Uzbekistan among the Great Power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에 의존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UN 총회 참여를 위해 1993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장에서 “신생독립국은 강대국의 힘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어느 강대국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즈베키스탄은 강대국들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⁵²⁾. 카리모프에게 러시아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필요한 국가였다.

동시에 카리모프는 러시아가 소련을 재건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개최한 경제통합 총회가 1994년 알마티에서 열릴 당시 카리모프 대통령은 타슈켄트 공항 인터뷰에서 소련 부활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 목에 밧줄을 걸어 축사에 묶게 하지 않은 것이 나의 목표(to once again tie a rope round our necks and be taken and tied in a cattle house)”라고 강조한다.⁵³⁾

카리모프는 연설할 때마다 ‘식민지’라는 단어를 강력히 언급했다. 특히 독립 이후 연설에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카리모프의 소련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강력히 보여주는 단어였다. 카리모프는 처음부터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문제로는 루블화 사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안보 보장 측면에서 카리모프는 CST를 체결했지만 동시에 조약 체결 과정을 총괄했던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동등한 위치에 있으려고 했다.

1994년 11월 연설을 보면 카리모프는 CIS 국가들의 정치적인 통합에 대한 논의에 비판하고 있다. CIS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통합 의회, 통합 국적 및 군대 형성은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⁵⁴⁾ 카리모프에게는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는

42, No.3, (September 2009), pp. 353-373.

52)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b).

53) “President Karimov Previews Almaty Summit”, *Tashkent Radio Tashkent Network in Uzbek* (July 1994), FBIS Daily Report Soviet FBIS-SOV-94-132, July 11 1994.

54)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b), pp. 324.

것을 상기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리모프는 유라시아 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유라시아 연합이 통일된 운영체계, 언어, 국적 등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기존의 소련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⁵⁵⁾ 강봉구는 “타슈켄트가 1990년대 초반부터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제안해온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라시아연합 형성안에 카리모프가 반대한 배경에는 카자흐스탄과 경쟁 관계가 작용했다”⁵⁶⁾는 주장을 하지만 카리모프는 오히려 그 시기에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또한, 카리모프 자신과 나자르바예프의 관계가 경쟁적이라고 보도하는 러시아 언론들을 비난하면서, 이들이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려는 이유는 러시아를 배제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통합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⁵⁷⁾ 소련이라는 하나의 연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투란’ 혹은 ‘투르키스탄’, ‘마베라운나흐르’였다고 언급한다.⁵⁸⁾

구소련 국가들의 러시아와의 재통합에 대한 계획들과 소문들이 있었다. 그 당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일부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논의들을 듣고 카리모프는 1996년 3월 23일에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벨라루스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한다. “루카셴코(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가 러시아 중심으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해 멸망할 것처럼 느껴진다.”⁵⁹⁾

카리모프에게 지역 안보 문제는 중요한 위협이었지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통합은 원치 않았다. 그는 구소련 국가들이 통합을 해야 하되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통합은 군사 블록화를 고려하면 안 된다고 언급한다. CIS도 카리모프에게는 현실적인 영향력은 없는 연합으로 평가된다. 그는 CIS의 여러

55)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b), p. 228.

56) 강봉구, 2007, pp. 47-75.

57)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c), p. 192.

58)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a), p.92.

59)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c), p. 297.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점을 비난한다. 1995년 2월 10일 알마티에서 개최된 CIS 총회에서도 카리모프는 CIS 경제적 통합, 관세 동맹 등은 찬성했지만 통합적인 군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동시에 CIS의 문제는 군사적 정책을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⁶⁰⁾ 당시 러시아는 NATO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CIS 연합 내에서 군사적 블록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1996년 2월에 카리모프가 러시아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블록을 만드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도 CIS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블록을 형성하게 되면 지역 정세는 이전의 소련과 미국 간 냉전과 같이 회귀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ST 기반으로 군사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96년 7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카리모프는 CIS 기반의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⁶¹⁾ 그가 CIS를 언급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CIS 국가들의 '동등한 협력'이다. CIS는 국제법에 따른 국제정치행위자가 아니라 '연방'(commonwealth)이라고 강조한다. 미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에 있어 우즈베키스탄은 이것이 CIS 국가들과의 협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은 다른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동 협력 관계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⁶²⁾

1997년 3월 러시아 언론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이 러시아의 경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들만의 통합을 막기 위해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국가들 간의 경쟁 상황을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바가 있다.⁶³⁾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

60) Ислам Каримов, *Мыслить и работать по новому требованию времен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1997(b)), p. 245.

61)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7(b), p.62.

62)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7(b), pp. 63-64.

63) К. Затулин и А. Мигранян, "СНГ: Начало или Конец Истории. К сме не вех,"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Содружество*, Vol. 26, (March 1997),

노력을 비판하면서 이 국가들의 강대국들 및 서구와의 협력관계를 제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 또한 타국가의 주권과 외교정책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러시아의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협력에 있어서 카리모프는 CST가 집단안보를 보장하는 조약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엘친 정권이 서방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CST는 더욱 방치되었고, 이는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⁶⁴⁾ 이와 같은 러시아 정책과 동향들도 우즈베키스탄이 CST를 연장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카리모프에게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국가안보는 우선적인 과제였다. 카리모프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주권이 흔들릴 정도로 군사적 협력을 하지는 않겠다고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다. 카리모프가 인식하는 국익은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안보였고 외교정책은 이러한 국익에 기초한 것이었다. 카리모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기원으로 소련의 제국주의적인 야심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는 그만큼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들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전에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했고 그것에 따라 정책이 펼쳐졌다.

카리모프에게 소련 재건뿐만 아니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타지키스탄의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 역시 큰 안보 위협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에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강대국들 간 “신거대게임”⁶⁵⁾의 중심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교

<https://zatulin.ru/sng-nachalo-ili-konec-istorii-k-smene-vex/>

(검색일: 2017.11.13.)

64)성동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문제점, 정체성 그리고 전망,” *슬라브학보*, Vol. 28, No.3, (September 2013), pp. 135-174.

65)Alexander Cooley, *Great Games, Local Rules :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 Alexander Coole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정책을 통해 그러한 강대국 사이 게임에서 균형을 잡고⁶⁶⁾, 다자주의를 추구하였다.⁶⁷⁾

카리모프는 1997년에 출판된 ‘우즈베키스탄, 21세기 전야제: 안보 위협, 진보의 조건과 보장’(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Threats to Security, Conditions of Stability and Guarantees for Progress) 저서에서 주요 위협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집단안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다. 정치적 극단주의, 종교적 극단주의, 민족주의, 민족적 고립주의, 민족, 인종 및 클랜들 간의 갈등, 부정부패와 범죄, 환경문제 등이 존재하는데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⁸⁾

카리모프가 타지키스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위협 가운데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점 중 하나는 두 국가에서 거주하는 우즈베크 사람들이었다. 그는 타지키스탄에서 150만 명의 우즈베크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내전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즈베키스탄이 타지키스탄 내전 위협을 감소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극단주의 세력의 발흥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지역인 페르가나 계곡에 극단주의 세력들이 강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카리모프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타지키스탄 문제를 국제사회와 협의했고, 타지키스탄 정부에서 평화유지군 지원을 CIS에 요청했을 때도 이에 화답하여 배치된 병력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와 같은 지원을 카리모프의 지역적 리더십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⁶⁹⁾ 그렇지만 이는 타지키스탄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우즈베키스탄의 평화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9월에 UN 총회에서도 카리모프는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66) Matteo Fumagalli, 2007(a), pp. 253.

67) Aleksandr Pikalov, 2014, pp. 1-15.

68) Ислам Каримов, *По пу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1998(d), pp. 32-36.

69) Ji-Eun Lee 2010(b), pp. 125-141.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그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비난하면서 UN에서 중앙아시아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의를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연설에서, “지역의 안보를 세계 안보와 별도로 보면 안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비핵화 지대 구축을 요청하고 생화학 무기 사용을 반대한다.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문제를 글로벌한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⁷⁰⁾ 는 발언을 한다. 카리모프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리즘과 타지키스탄 내전 문제를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UN과 유럽연합 및 OSCE와의 협력을 시작했다.

카리모프는 CIS 국가들의 집단안보 협의체를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집단안보 체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바도 있다.⁷¹⁾ 하지만 CIS나 CST를 통해 타지키스탄 내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상황 해결을 위한 정책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타지키스탄 내전에서 러시아의 해결사로서의 조정 역할이 제한적인 것을 보고 타슈켄트는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의존적 태도를 전환하게 된다.”⁷²⁾ 는 연구가 있지만 카리모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 국가들 간 집단안보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1995년 9월 2일에 군사아카데미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카리모프는 CIS를 통해 평화유지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군사 독트린으로서 중요한 제안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연설할 때마다 나타났던 국가의 독립성 강조 기조는 외교정책을 통해 추진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나 미국 한 쪽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거나 자주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 블록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지만 안보협력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카리모프가 발언한 바 있었으며⁷³⁾, 1994년에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 for Peace) 프로그램에 합류한다. 미

70)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b), pp. 52-53.

71)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a), pp. 41-42.

72)강봉구, 2007, pp. 47-75

73)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a), pp. 41-42.

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는, “미국이 글로벌 그리고 지역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진 국제정치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⁷⁴⁾

카리모프는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되살려 이를 국가 이미지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즈베키스탄을 알리려고 했다. UN과 OSCE를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로 인식하여 적극 활용하였고, 군사 측면에서는 미국과 NATO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가 주된 위협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공산주의 이념과 소련의 부활 및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과 테러였다.

3.1.3. 환경과 위협인식을 따른 안보전략 및 CST 탈퇴 원인 분석

카리모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벗어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세웠고, 안보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을 주도하였다. 테러와 극단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 및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추진하였다.

카제미에 따르면, “독립 이후에 카리모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모든 구조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⁷⁵⁾ 카리모프에게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확고히 하고 지역 국가들만의 통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지역 국가들은 소련 시기 자치 공화국으로서 경제 개발을 자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3년 CIS 국가들이 모인 아슈가바드 총회에서 카리모프는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제안한다. 그는 “투르키스탄은 우리 모두의 집이다”라는 주장을 앞세워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하나의 통합된 경제적, 정신적, 정치적 환경을 구

74) 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c), p. 22.

75) Leila Kazemi, 2003, pp. 205-216.

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⁶⁾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언급하였고, 1994년 1월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은 '통합된 경제구역 구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간 지역적 협력의 상징으로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AEC: Central Asian Economic Community)를 형성한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루블 통화도 199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숨' 통화로 대체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켰다.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을 위해 수립한 "우즈벡 모델"⁷⁷⁾은 카리모프가 자랑스러워하는⁷⁸⁾ 경제정책이다. 그는 독립 초반에 중앙아시아 및 CIS 국가들의 경제발전 경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모델과 비교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모델은 '혁명적인'(революционная)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 다른 CIS 국가들의 산업 발전은 점차 지체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그들에 비해 국민소득 성장 속도가 저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최저임금이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기존의 농업 중심적 경제 발전 기초를 산업화로 선회하였다. 이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 중에 최초로 1994년에 한국의 대우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다. 카리모프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예 대해 "과거에 우즈베키스탄의 이미지는 목화랑 연결되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를 아무도 몰랐다. 우리가 소련시기에 목화만 재배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을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고 수많은 국가에서 사업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⁷⁹⁾

76)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a), p. 77.

77)"우즈벡 모델" 경제개발의 5가지 원칙: 1) 정치보다 경제가 우선함; 2) 주요 개혁주체로서 국가; 3)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법치; 4) 인구 구성을 고려한 강력한 사회정책; 5)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

78)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b), p. 174.

79)Ислам Каримов, 1999(b), p. 41.

타지키스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다룬 1995년 10월 UN 특별 회의에서도 카리모프는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 무기 공급 금지 요청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⁸⁰⁾ 기존에 아프가니스탄 무기 공급 금지를 국제사회에서 요청한 국가는 없었고 카리모프의 주도 하에 우즈베키스탄이 처음 요청했다.

군대와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미군 및 NATO와의 협력도 추진했다. 카리모프는 “냉전 종식을 증명하는 사건 중 하나는 미군이 추진한 협력 나제트-95(COOPERATIVE NUGGET-95) 군사훈련에 우즈베키스탄 군인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다.”⁸¹⁾라고 말했다.

위 발언에 덧붙여서 카리모프는 우즈베키스탄 군인들은 러시아와 미국 군대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면서, 이들과 교육과 훈련도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와 같이 카리모프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에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과 동등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지역 안보 문제들을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5년 9월 15-16일에 타슈켄트에서 UN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 안보와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러시아 등 여러 강대국 대표들과 20여 개 이상의 국제기구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의 핵심 목표는 ‘평화, 안보, 협력’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도 타슈켄트에서 지역안보 과제들에 관한 ‘중앙아시아 비핵무기 지대’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같은 해 UN의 지원으로 타지키스탄 내전 해결을 위한 모스크바 평화회담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타지키스탄 내전은 1997년 6월 종결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해 카리모프 대통령은 6+2(중앙아시아 5개국, 아프가니스탄 + 러시아, 미국) 그룹 형성을 제안한다. 동 그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해결 및 지역안보 보장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첫 번째 회의는 1997년 뉴욕에서 열렸고 두 번째 회

80)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c), p. 57.

81)Ислам Каримов, 1996(a), p.147.

의는 1999년 7월에 타슈켄트에서 열렸다. 타슈켄트 회의 결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책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본 선언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6+2 그룹과 아프가니스탄 내 대결 세력 간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제안한다. 또한, UN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 형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비무장화 및 양쪽의 이익을 고려한 합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카리모프는 “안보가 집단적이어야 한다.”⁸²⁾는 주장을 앞세우면서 UN과 OSCE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게 되면 우즈베키스탄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CIS 국가들과 함께 체결한 CST는 카리모프와 우즈베키스탄에 충분한 수준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리모프는 집단안보를 위한 또 다른 공동체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NATO와의 협력을 강화시켰던 이유도 NATO 측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심각성 및 지역안보 과제에 대해 공감하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리모프는 CIS 국가들이 충분한 독립성과 주권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CIS에서 완전히 독립한, 주권이 보장된 국가들의 통합을 보고 싶다”⁸³⁾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그는 CIS와 CST의 효과적이지 않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했지만⁸⁴⁾ 동 기구들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9년 타슈켄트 테러 사건 이후에도 CST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은 카리모프가 동 조약의 연장을 거부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보 공동체를 모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냉전 종료 이후 전세계적으로 양극체제가 다극화되면서 중앙아시아에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그러한 불안정 속에서 테러와 극단주의 이슬람이라는 적을 대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독립 초반에 약한

82)Ислам Каримов, 1997(а), pp. 132-135.

83)Ислам Каримов, 1997(а), p. 235.

84)Ислам Каримов, *Избранный нами путь - это пу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рогрессивным миром* -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3,) p. 219.

군사력으로 인해 구소련 국가들과 함께 CST를 체결하기로 한다. 지도자 인식에 따라 주된 행위자로 손꼽히던 UN, OSCE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군사력을 키우면서 미국, NATO와 군사훈련도 추진한다. 공산주의 이념 및 극단주의 이슬람 이념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의 마나비야트 정신, 윤리 교육을 주도하여 국가의 독립성 이념을 형성시킨다.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들을 발굴하여 국가의 위상을 되살려 이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다. 구소련 국가들과 체결된 안보조약의 활동은 효과적이지 못했는데, 이의 원인은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 시기에(1992-1999)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권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⁸⁵⁾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집단안보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기에, 우즈베키스탄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CIS나 CST를 제외한 또 다른 집단안보 공동체를 모색하게 되었고 타슈켄트 테러 사건에 대한 CST 회원 국가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반응은 동 조약 연장 거부와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 카리모프는 냉전이 종료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새로운 테러와 근본주의 이슬람의 위협이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체계를 구축을 위해 OSCE에 지원을 요청한다. 테러방지 국제센터를 형성해서 테러집단들의 자금공급 루트를 찾아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카리모프는 지역 안보 및 국가의 주권 보장을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에 주목한다.

3.2. 1999-2006년 CSTO 탈퇴 시기 및 재가입 원인 분석

1999년 CST 탈퇴 이후부터 2006년 재가입 시기에 우즈베키스

85) Lena Jonson, *Russia and Central Asia: A New Web of Relations*: (Washington, London: Brookings Inst Pr, 1998)

탄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카리모프 대통령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여 한 번 탈퇴했던 안보 공동체를 왜 또 다시 가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통령 인식을 분석한다. 1999-2006년간 국제질서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위협 인식 및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확인한다.

3.2.1. 국제 및 지역질서 변화에 대한 지도자 인식 분석

21세기에 변화된 환경 및 국제정세에 따라 카리모프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테러와 반란사태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21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9년에 코소보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알바니아계 무슬림들과 세르비아 정부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 코소보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체첸 공화국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들은 모스크바에서도 여러 차례 테러를 기도했다. 세계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넘어가고 있었고 민족간의 갈등과 테러리즘, 극단주의 등의 위협이 부상했다.

1999년 말 러시아 정권이 옐친으로부터 푸틴으로 넘어갔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푸틴은 ‘근외지역(Near Abroad)’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했고 구조화된 이해관계를 지닌 일관되고 실용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⁸⁶⁾ 이는 기존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방주의와 정반대되는 정책이었다. 2000년 6월 28일 러시아는 새로운 외교정책 개념을 수립했는데,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의 가장 큰 권력 중 하나라고 간주하면서, 글로벌 및 지역 수준에서 세계 안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⁸⁷⁾ 푸틴이 첫 해외 방문 국가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21세기 국제질서와 세계정세를 전반적으로 바꾼 사건은 바로

86) Irina Ionela Pop, "Russia, EU, NATO,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STO in Central Asia,"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 No.3, (Summer 2009), pp.278-290.

87) Roland Dannreuther, "Can Russia Sustain Its Dominance in Central Asia?," *Security Dialogue*, Vol. 32, No.2, (June 2001), pp. 245-258.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테러 사건이었다. 9/11 테러 이후 세계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서구의 대결의 시기로 넘어왔다. 근본주의자인 빈라덴(Bin Laden)은 미국에 대한 '성전'을 시작한 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세계는 새로운 적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이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테러 위협은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여러 변화를 가지고 왔다. 특히나 1999년 2월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 테러 사건으로 인해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및 극단주의와 테러 위협을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타지키스탄 내전 종료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주권과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었던 IMU에 대항하기 위해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안보 공동체가 요구되었다. 카리모프에게 CST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CIS 국가들에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CST에서의 활동이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의 자발적인 국가안보체계 구축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⁸⁸⁾ CST 회원자격 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던 카리모프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9/11 테러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이후부터 지적해 왔던 극단주의 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9/11 테러 이전부터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악화되어, 탈레반이 199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95%를 점령했다. 그 중에는 우즈베크인 인구가 대다수인 마자리 샤리프(Mazari-Sharif)라는 아프간-우즈베크 국경 도시도 포함되어 있었다.⁸⁹⁾ 1999년부터 2000년 8월까지 IMU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남부 지역 페르가나 계곡에서 인질극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단행했다.⁹⁰⁾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즈베키스탄뿐만 아

88) Сергей Беспал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Еврази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No.11 (55), (November 2015), pp.114-130.

89) Roland Dannreuther, 2001, pp. 245-258.

90) 김태연,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 (IMU)과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 (IRPT)

나라 중앙아시아 지역 모든 국가들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위협이 되었지만,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카리모프의 발언과 언급들은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으로 인해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카리모프는 9/11 테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아무리 국가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테러리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9/11 테러사건을 통해서 기존에 테러사건을 지켜보기만 했던 국가들은 테러를 직접 겪고 그 고통과 위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1999년 OSCE 총회, 1993년 UN 총회에서 테러의 세계적인 위협에 대한 연설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국가들의 반응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⁹¹⁾

카리모프는 일찍이 국제사회에 테러의 위협을 알렸지만 그것을 어떠한 국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9/11 테러를 통해 카리모프는 지속적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국가를 확보했다. 미국과의 대테러 협력강화는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을 핵심 파트너국으로서 인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⁹²⁾ 미국과 NATO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적극적이었다. 2001년 9월 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과 NATO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⁹³⁾ 그 이후에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푸틴은 CIS 국가들과 러시아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의 발생조건과 요인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Vol 26. No.2, (November 2016), pp.71-109.

91)Каримов И.А.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мир надо бороться* - Т: Узбекистан 2002 (b). pp. 99-102.

92)Fazendeiro B.T, 2017, pp. 409-427.

93)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а в Бундестаге
ФРГ. 2001.09.2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340> (검색일: 2017.11.15.)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테러를 방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2004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타슈켄트와 부하라에서 여러 차례 테러가 발생했다.⁹⁴⁾ 이번 테러 사건도 IMU가 감행한 사건이었다. 테러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피해자 수도 적지 않았다.⁹⁵⁾ IMU는 알카에다 산하에 편입되었고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권에 대항해 무슬림 국가 건립을 시도하고 있었다. 카리모프는 이 사건이 1999년 2월 테러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테러 단체들이 칼리프 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다는 점을 비난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한다.⁹⁶⁾ 테러단체의 이와 같은 반발은 계속되었다. 같은 해 7월 타슈켄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건물 앞에도 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건도 IMU가 감행한 테러였으며, 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⁹⁷⁾ 테러는 지속적으로 카리모프의 정권 및 우즈베키스탄의 주권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내부에 테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고 다른 구소련 국가도 안전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구소련 국가인 그루지아(2003), 우크라이나(2004)와 키르기스스탄(2005)에서 색깔 혁명이 일어나 국가 정권교체가 발생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색깔혁명이 일어난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었다. 카리모프는

94)Теракты и беспорядк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1999-2005 гг. Справка(2009 май) <https://ria.ru/world/20090526/172345801.html> (검색일: 2017.11.15.)

95) 약 42여 명의 사망자와 50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96) Ислам Каримов, *Мирная Жизн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Зависят От Единства И Твердой Воли Нашего Народ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4), pp. 187-203.

97) Теракты и беспорядк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1999-2005 гг. Справка (2009 май) <https://ria.ru/world/20090526/172345801.html> (검색일: 2017.11.15.)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사회 불만이 누적되어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에서 색깔혁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비슷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⁹⁸⁾ 그러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반대세력의 봉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일어났다. 정권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2005년 5월 12-13일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안디잔 도시에서 반란이 발생했다. 안디잔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카리모프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범죄 집단은 자정에 안디잔에 있는 교도소에 진입해서 공격을 했고 교도소에 있었던 600명의 범죄자를 풀어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정부 기관, 시청을 공격했고 포로들을 잡은 후, 가족에게 전화해서 아이들과 부모들, 부인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했다. 그래서 광장에 300여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다. 범죄자들이 내건 조건은 타슈켄트 교도소에 있었던 테러범들을 풀어놓는 것이었다.

안디잔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을 준비한 기간은 3-6개월이다. 모든 행동이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범죄자들은 Hizb-ut-tahrir⁹⁹⁾ 단체의 Akromiya 그룹 구성원들이다. 그들은 키르기스스탄 오쉬와 잘랄아바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민주주의를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킬 수 없다. 브레진스키도 주장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테러리스트들이 주변국가에 행한 전화통화를 추적했다.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또 하나는 오쉬와 잘랄아바드로 걸렸다. 안디잔 사건은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계획된 사건이다.”¹⁰⁰⁾

98) Ислам Каримов, *Узбекский народ никогда и ни от кого не будет зависеть*,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5(b)), pp. 44-48.

99) “Hizb-ut-Tahrir 아랍어에서 자유당이라는 뜻이며, 1953년 예루살렘에서 설립됨. 반유대주의 테러단체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극단주의 이슬람 비밀조직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안디잔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이유로 서구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 러시아 측은 카리모프의 안디잔 사태 대응 정책을 비난하지 않았다. 카리모프는 국제사회의 안디잔 사태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도 이것이 주권과 국내 상황에 대한 외부 국가와 국제기구들의 개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의 모든 원인과 테러 용의자들의 조사를 국내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안디잔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언론에 즉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유럽, 서구 언론에서 안디잔 사태로 인해 정부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희생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하트만에 따르면, 실제 숫자는 정부에서 발표된 187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총 211명의 희생자 중에 43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무원이었고 그 중에 14명은 인질이었다. 또 40명은 반란을 일으킨 테러범들이었다.¹⁰¹⁾ 서구와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안디잔 대학살이라고 부르며, 범죄자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인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이 행한 조사결과에 의하여 실제 무장한 범죄 집단이 존재했고 정부가 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안디잔 사건은 국내외 정책에 있어, 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안보 공동체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게 했다.

9/11 테러부터 2005년 안디잔 사건까지의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테러와 반란이 제일 많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카리모프는 양자 협력과 안보 공동체를 통한 협력을 필요로 했으며, 이것은 2006년 CSTO 재가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100)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5(b), pp. 158-168.

101) Jeffry Hartman. *"The May 2005-Andijan Uprising: What we know"* Silk Road Paper,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Silk Road Studies Program, Johns Hopkins University, (2016).

3.2.2. 안보 위협에 대한 지도자 인식

독립 초반에 소련의 재건이라는 위협이 있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카리모프에게 제일 큰 위협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이 되었다. 카리모프는 1999년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리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국가들은 힘을 합쳐서 지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²⁾

IMU 세력들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지역의 테러를 통해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에 타격을 주었고 이것을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카리모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한다. “왜 우즈베키스탄일까? 우즈베키스탄의 지역적 위상, 정치-경제적, 윤리적 잠재력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에 이 지역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질서에 따라 지역 질서 나아가 세계 질서도 변화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오래전부터 이슬람 교육을 해왔고 이슬람 영향이 컸던 국가였기 때문이다”¹⁰³⁾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라는 점을 이용해 근본주의자들은 이 지역에 7세기에 존재했던 칼리프 국가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안보 공동체를 통해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8월에 열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비슈케크(Bishkek) 정상회담에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 장관인 이바노프(S.Ivanov)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협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테러리즘, 정치적 및 종교적 극단주의, 초국적 조직범죄 등의 안보 위협 공동방지에 관한 타슈켄트 협정’(Ташкентский Договор о совместных действиях п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 политическим и религиозным экстремизмом,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и иными угрозами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без

102)Ислам Каримов, 2000, pp. 83-84.

103)Ислам Каримов, *За процветание Родины - каждый из нас в ответе*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1(a), p. 73.

опасности сторон)에 러시아의 합류를 제안했다.¹⁰⁴⁾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극단주의로 인한 직접적인 테러를 경험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강대국들의 안보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테러리즘과 근본주의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카리모프는 강대국들의 태도에 대해 “세계의 각 지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강대국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⁵⁾고 했다.

카리모프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위협에 대해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했지만 국가들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테러 방지를 위해 강대국인 러시아와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러시아와 새로운 군사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고 러시아와의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러시아가 강한 국가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소련이 이제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독립한 국가이고 우리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세계적인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문제에도 러시아를 제외하면 안 된다.”¹⁰⁶⁾고 주장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카리모프는 부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적 기술이 우즈베키스탄이 이때까지 싸우려고 했던 테러라는 악과의 싸움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⁰⁷⁾

2004년 타슈켄트와 부하라 테러 사건 이후부터 또 다시 국가의 이념을 강화하는 정책도 펼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통합,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통해 테러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테러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윤리 교육 부족을 비난했다.¹⁰⁸⁾

104) ИАЦ “КАБАР”, Бишкекский саммит может стать началом реши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2000.08), https://www.neweurasia.info/archive/2000/ka_press/08_21_kabar-21.html (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105)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1(a), p. 100.

106)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1(a), p. 279.

107)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2(b) pp. 102-106.

108)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4, p. 214.

카리모프는 이를 위해 군대의 강화뿐만 아니라 마할라를 통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추진했다. 마할라에서 “마할라 지킴이”(Mahalla posbonlari) 그룹을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 사고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마할라는 마나비야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풍습과 가치관을 지키고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다. 카리모프는 마할라를 국가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단체로 여겼다. 마할라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할라는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이다.¹⁰⁹⁾ 카리모프는 SCO 활동에서도 마나비야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¹¹⁰⁾

카리모프는 이 시기에 세계를 극단주의로부터 구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미국에 협조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안보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또한 세계적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¹¹¹⁾

3.2.3.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안보 전략 추진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CSTO 재가입 과정 분석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9-2006년 간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안정성에 큰 위협을 주는 극단주의 세력 및 테러리즘과 싸움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강대국인 러시아 및 미국과 양자 협력, 또한 안보 공동체인 SCO 가입을 통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 강대국들과의 협력에서 나타났던 카리모프 전략의 성격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자주적인 외교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카리모프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려고 했다. 테러가 가장 자주 발생했던 이 시기에 카리모프의 대테러 대응 및 2006년에 한 번 탈퇴한 기구를 재가입하게 된 카리모프

109)Ислам Каримов, 2004, p. 90.

110)Ислам Каримов, 2003, p. 257.

111)Ислам Каримов, 2002(b), p. 246.

의 의도를 살펴본다.

카리모프는 지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택했다. 2000년 1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체계적인 국내 및 국경수비대 형성, 군대 개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국경 강화와 국경 시설 개선 및 훈련강화를 주장하면서 국제테러방지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¹²⁾

카리모프의 전략은 강대국들의 군사 지원을 통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쪽에 의존하면 결과적으로 그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꾸준히 동등한 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양자협력의 필요성도 주장한 바가 있다.¹¹³⁾ 이러한 양자협력은 최신 기술을 갖춘 군대를 만들고 최신 무기를 구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카리모프는 “동등한 파트너 관계”라는 표현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 대해 활용한다. 이와 같은 언행을 통해 카리모프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적 블록화보다 양자 협력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가 군사적 블록에 국가가 가입하면 어느 하나의 강한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그 국가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CST 일환으로 군사적 통합을 하겠다는 제안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반대했었던 것이다.

카리모프에게는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했다. 2000년 4월 28일 타슈켄트에서 열렸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상회담에서 “여기 하나의 정책만 존재해야 한다. 안보, 다시 한번 안보, 또 다시 한번 안보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이다.”¹¹⁴⁾라고 했다. 이 정상회담의 결과 공동 방위협정이 체결되었다. 카자

112)Ислам Каримов, 2000, p. 84.

113)Ислам Каримов, 2000, p. 474.

114)Bruce Pannier. “Central Asia: Presidents Grapple with Regional Security”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2000년 4월 29일)
<https://www.rferl.org/a/1093833.html> (검색일: 2017년 11월 14일)

호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에 있어서 6+2가 도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호 공동 방어체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1998년 미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카리모프 정부에 있어 테러 위협 해소는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1999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구(GUAM)에 가입한 이유도 집단안보 체제를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카리모프가 미국과 협력관계를 시작한 배경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친미 정책을 추구하고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를 의도했다는 점을 들었다.¹¹⁵⁾ 그러한 주장이 탄생한 원인은 카리모프가 CST 활동을 비판하면서 가입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미 협력의 목적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카리모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통해 지역 안보를 보장하고 동시에 국내의 민주화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 사회경제적 발전, 국민들의 윤리적 발전, 국제사회와의 통합은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다.”*¹¹⁶⁾

2001년 10월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테러 협력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NATO에 우즈베키스탄 영공 사용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이에 러시아 언론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친미 외교노선을 선택해서 미국에게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카리모프는 전세계가 테러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국가로 인식될 것인가라는 발언을 한다.¹¹⁷⁾

카리모프는 10월 5일 미국과의 합의를 발표한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미국 공군에 영공 제공을 허락한다. 둘째, 양국 안보 기관 간 협의 추진을 약속한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 있는 군사공항으로

115) 강봉구, 2007, pp. 47-75; Dina Rome Spechler, and Martin C. Spechler, 2009, pp. 353-373.

116)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0, p. 337.

117)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2(b), pp. 112-246.

의 미국 군사 항공기 착륙과 미국 전문가와 항공기 관리 직원들의 업무 진행을 허가한다. 공항 운영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 항공기를 인도적 차원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지상 전투 작전은 금지되었다. 나아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포격도 금지했다.¹¹⁸⁾

카리모프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테러와 극단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미국과의 협력을 학자들과 언론은 ‘친미’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친미 정책이라고 하면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은 반-러시아, 혹은 러시아 견제 등의 특성을 보여야 하나, 실제 카리모프는 미국과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 결정을 지지했었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하나바드에 미국 군사기지를 배치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러시아나 다른 구소련 지역 언론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를 논의하고 반러시아 정책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카리모프는 하나바드의 미군 군사기지 배치 결정을 내린 며칠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여 지역적 위협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미국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미군 군사기지 배치를 결정한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적인 의지는 국내 사안이라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¹¹⁹⁾ 아프가니스탄 상황으로 인한 지역 위기는 러시아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미국과 NATO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카리모프에 의하면, 러시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한 중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했었다.¹²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 키

118)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2(b), pp. 112-113.

119)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2(b), pp. 253-257.

120) Alexey Fenenko. 2013. Prospect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STO and NATO after the End of the War ‘War on Terror’ in Afghanistan”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NATO’s Role in Regional Security since 9/11 OF. Tansiver (ed) IOS Press 2013*, pp.200-214.

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했다. 2002년에 우즈베키스탄은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DSPFC: Declaration on Strategic Partnership and Foundations of Cooperation)을 체결하여 군사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한층 더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한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120만 달러를 우즈베키스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지원했다.¹²¹⁾ 카리모프 입장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이 고려하고 있는 국익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된 국익과 동일하다. 카리모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CIS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1999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여러 차례 국경 진입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CIS 국가들과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모두가 궁금했던 것은 카리모프가 CST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였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다. CIS가 위협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하는 이유도 바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²⁾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러시아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단순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CIS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동맹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¹²³⁾ 2002년 5월 14일 CST 회원국 회의에서 CST를 CSTO로 격상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카리모프는 CIS의 활동을 비판했으나 그것이 반러시아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협력함과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을 지속했다.

121) Jeffrey Hays, “United States and Uzbekistan after September 11th” (April 2016)

http://factsanddetails.com/central-asia/Uzbekistan/sub8_3f/entry-4732.html (검색일: 2017년 11월 20일).

122)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2(b), pp. 323.

123) Сергей Беспалов, 2015.

2002년 11월 22일에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NATO가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카리모프가 언급했던 국가는 바로 러시아였다. 우즈베키스탄에게는 테러에 대응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으며, 특히 러시아와 미국 같은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2005년 안디잔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카리모프가 NATO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설하면서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의 군사화를 반대한다. 특히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기지가 키르기스스탄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미국이 배치한 군사기지는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평화롭게 종결될 때까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 군사기지까지 배치하면 지역의 군사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우리 주권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군사기지의 배치가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²⁴⁾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카리모프는 주권과 국가의 안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해결되면 미군도 철수시킬 것이고 러시아 군사기지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전한 것이다.

NATO와 러시아의 협력을 중요시했던 카리모프가 왜 CSTO에 다시 가입하지 않았을까? 바로 카리모프의 CSTO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그는 2003년 4월 우즈베키스탄 국회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문제는 수년간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우즈베키스탄이 CST에 가입했을 당시에도 CIS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CST의 활동을 비판한다.¹²⁵⁾ 따라서 카리모프가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고 그 국가의 지원에 따라 외교정책을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그는 그가 생각하는 국익과 국가의 안보, 가치관에 맞는

124)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5(b), pp. 56-58.

125)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3, p. 219.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리모프는 3차례 색깔 혁명이 발생했을 때 CIS가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실제로 CIS 지역에서 존재한 CSTO, EuraSec 같은 기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카리모프는 구소련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단적 조치를 취하길 원했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안보 공동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소련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기구들은 카리모프의 위협 인식 또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카리모프가 미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한 것은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을 공유할 수 있는 안보 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다. 지역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이 SCO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동 기구가 경제적 협력,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방지, 조직범죄 및 마약 매매 방지 등의 여러 측면에서 지역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보의 기반은 상호신뢰, 개방적인 정책, 국가이익과 지역이익 간의 합리적인 균형 준수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 선언에서 명시하는 비블록화,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비경쟁,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추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테러리즘, 분리주의, 근본주의 방지에 관한 선언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및 참여할 것이다.”¹²⁶⁾

SCO는 집단안보조약과 달리 비블록화를 선언하고 있었으며, 회원국들의 군사적 통합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이 SCO 회원으로 2001년에 가입을 결정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블록화 원칙이었다.

2004년 타슈켄트와 부하라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이후에 카리모프는 IMU의 우즈베키스탄 공격을 막기 위해 SCO와 협력했다. 2004년 6월 타슈켄트에서 열린 SCO 정상회담에서도 테러와 극단주의 문제들이 논의되어 지역안티테러제도(RATS: Regional Anti-Terror

126)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1(a), pp. 349-350.

Structure)가 타슈켄트에서 설립되었다. 동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테러 문제와 마약 밀매 문제가 깊이 논의되었다. RATS의 구축은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안보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위협인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국가이익에 따라 변화했던 외교정책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4년 테러 이후에도 집단안보 보장을 추구하기 위해 SCO를 택한 것이었다. 카리모프는 각 회원국들이 RATS에서 빠르게 소통하고 국가들의 간의 군사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RATS는 UN, ASEAN, Interpol, Europol 등의 기구들과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⁷⁾

SCO에서 펼쳐진 러시아의 정책과 활동을 본 카리모프는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에 대한 복귀 정책으로 부르기도 한다.¹²⁸⁾ 그러나 상기 언급되었던 내용과 같이 카리모프의 외교정책의 흐름과 그의 연설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은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주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안보 측면에서 집단안보 공동체를 택해왔다. 시기와 사건, 또한 공동체들의 사례와 사건에 대한 인식 및 대응에 따라 카리모프의 동맹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2005년 1월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외교정책은 국익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제관계의 이념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외교정책의 우선 과제는 평화와 안보라고 언급한다.¹²⁹⁾

카리모프에게는 2005년 안디잔 사건이 국가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안디잔을 안정시키는 했지만 동시에 인권 단체와 서구 매체의 많은 비판을 받았고 유럽연합이 제재를 추진하기도 했었다. 카리모프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외부 언론을 통해 사태

127)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4, pp. 231-240.

128) 강봉구, 2007, pp. 47-75.

129)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5(b), pp. 102-104.

가 왜곡되었던 부분도 있었다. 물론 정부 측에서 범죄단체를 잡으려고 했던 시도가 일부 민간인 희생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카리모프는 안디잔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³⁰⁾

카리모프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국가의 주권을 강력히 강조하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SCO의 2005년 7월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국가의 외교정책은 안보와 국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4년 타슈켄트 정상회담에서 SCO 회원국들은 외국 군사기지의 국내 배치를 제한할 것을 논의했다. 2005년 7월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선언에는 미국 군사기지의 중앙아시아 철수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군사기지의 중앙아시아 배치가 가져올 위험성을 강조한 결과였다.¹³¹⁾ 이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안디잔 사태로 인해 서구의 비난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권과 국가 주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 학자들은 카리모프가 자신의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고려한 것 중에는 정권뿐만 아니라 국익도 포함되어 있었다.¹³²⁾ 그에게 국가의 이익은 바로 국가의 대외 안보와 국내 안전의 보장이었다. 따라서 카리모프는 미군의 철수를 요청했고 2005년 11월 21일 미군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군사기지를 철수했다. 그리하여 카리모프에게는 국가 안보보장을 위해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동반자와 동맹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SCO를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양자 동맹 협정'(TAR: Treaty on Allied Relations)을 체결한다.

우즈베키스탄은 1999-2006년 사이 미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지역 안보를 보장할 안보 동맹체가 요구되었던 상황에 있었다. 2001년에 우즈베키스탄은 SCO에 가입하여

130)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5(b), pp. 190-200.

131) Alexey Fenenko, 2013. pp.200-214.

132) Aleksandr Pikalov, 2014, pp. 1-15.

안보 공동체를 통한 반테러 활동을 시작했다. SCO의 이념과 목표가 카리모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그것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SCO의 효과적인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¹³³⁾ 그러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에 효과적이지 못해 탈퇴를 한 CST를 2006년에 다시 한번 가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CIS와 CSTO에 대한 비판을 정기적으로 해왔던 카리모프가 2006년에 동 기구에 재가입하게 된 외교정책의 변화는 무엇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CSTO를 재가입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05년 안디잔 사건 이후 서구 제재를 당한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와의 동맹을 통해 워싱턴의 정책을 균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¹³⁴⁾ 하지만 이미 탈퇴했던 동맹에 다시 가입하는 선택은 카리모프에게 강대국들 간 균형을 잡는 정책만으로써 강요된 것은 아니다. 카리모프는 동맹을 맺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려고 했었고 다른 동맹 국가들의 개입이 가능한 동맹이면 가입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CSTO를 재가입 하려고 했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많지 않다. 재가입을 원인을 찾기 위해 2006년 사례들의 과정 추적한다.

2006년 1월에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ec)에 가입을 한 뒤 러시아 정부 측은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을 희망하고 있었다. EuraSec 가입 후 CSTO 사무총장인 니콜라이 보르듀짜(Nikolay Bordyuzha)가 같은 해 2월 6-7일에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중앙아시아 안보보장을 위한 통일된 CSTO 사령부를 형성하려는 모스크바의 의지를 전달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측은 CSTO 가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CSTO 사무총장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중앙아시

133) Ислам Каримов, 2005(b), pp. 256-290.

134) Bernardo Teles Fazendeiro “Uzbekistan’s Suspension of CSTO Membership: Policy as Usual in Tashkent”, *E-International Relations*, 2012.07.19.
<http://www.e-ir.info/2012/07/19/uzbekistans-suspension-of-csto-membership-policy-as-usual-in-tashkent/> (검색일:2017.11.18.)

아 안보 문제를 우즈베키스탄 없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¹³⁵⁾ 라는 발언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CSTO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려 했다.

또한, 같은 해 2월 13일 러시아 두마 의원인 보리스 그리즐로프(Boris Gryzlov)도 타슈켄트를 방문하고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인 협력을 확대시키려는 의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CSTO 재가입을 희망한다고 표명했다. 이번에도 우즈베키스탄은 CSTO 재가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¹³⁶⁾ 카리모프는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의 CSTO 재가입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었다. 2006년 5월 12일에 소치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역 안보 문제들이 논의되면서 카리모프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¹³⁷⁾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 및 집단안보보장을 위한 CSTO의 역할에 대해 카리모프의 의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행동,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재가입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카리모프의 선택을 흔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2006년 6월 12일 CSTO 사무총장은 다시 한 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지역 안보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한다.¹³⁸⁾ 카리모프는 그때도 CSTO 재가입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러시아 측에서 6개월 내에

135) Sergei Blagov, “Uzbekistan Sets Limits for Cooperation with Russia” 2006,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2506.shtml> (검색일: 2017.11.18.)

136) Sergei Blagov, “Uzbekistan Sets Limits for Cooperation with Russia” 2006,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2506.shtml> (검색일: 2017.11.18.)

137) Начало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Исламом Каримовым (2006.0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8> (검색일: 2017.11.30.)

138) “Генералы зачастили в Ташкент.” 2006.06.12.

<http://www.uzmetronom.com/2006/06/12/generali-zachastili-v-tashkent.html> (검색일: 2017.11.16.)

4-5번의 방문을 했던 것은 분명히 카리모프를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설득 전략의 결과가 2006년 6월 22-23일에 벨라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EuraSec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CSTO 회원국들의 회담도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리모프는 그 자리에서 CSTO 재가입을 결정고 알렸다. 그는 CSTO 재가입의 이유가 EuraSec 가입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은 EuraSec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에 멈출 수 없다. EuraSec과 CSTO는 상호 연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¹³⁹⁾

위와 같은 카리모프의 발언은 우즈베키스탄이 EuraSec에 가입했기 때문에 CSTO도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CSTO 가입한 것은 8월부터였다. 2006년 6개월 간 러시아의 설득 속에서 얻어낸 동의 및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은 실제로 카리모프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후 정책의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EuraSec을 가입한 이후 경제적 동맹에서의 역할 확보 및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WTO에 가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의 안보 동맹인 CSTO 가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카리모프는 안보 측면에서 SCO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 측에서 추진된 6개월 간의 설득 과정의 결과로 CSTO 재가입을 선택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가입은 EuraSec 국가들의 WTO 가입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EuraSec에서 ‘국제 활동에 대한 개념’ 초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그에 따르면 모든 EuraSec 회원국들은 관세동맹을 구축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WTO에 가입한다는 조향이 있었다.¹⁴⁰⁾ 우즈베키스

139) “Узбекистан вернулся в ОДКБ” 24 июня, 2006. <https://lenta.ru/news/2006/06/23/odkb/> (검색일: 2017.11.18.)

140) Концеп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http://www.evrazes.com/docs/view/88> 2007년 7월 기준 (검색일: 11월 20일)

탄은 EuraSec를 통한 WTO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CSTO에 가입한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에 GATT에 옵서버 국가로 등록되었고 그 이후 1995년에 WTO 가입을 준비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형성했다. 1998년에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대외무역 및 국내무역체계에 대한 MOU를 WTO에 전달했으며, 이후 가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형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고 카리모프는 EuraSec을 WTO 가입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겼다. 그는 다른 회원국들의 가입을 위해 러시아의 WTO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바가 있다.¹⁴¹⁾ 카리모프에게는 CSTO가 그 자체로 유용하기에 가입한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6년에 민스크에서 열린 EuraSec과 CSTO 총회에서 CSTO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기구”라는 단어를 반복했고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 민스크에서 2002년에 형성된 CSTO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1999년에 연장을 거부한 CST 회원국으로서 이를 다시 연장을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¹⁴²⁾ 그런데 카리모프의 이와 같은 복잡한 발언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카리모프가 CSTO 가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6년 CSTO 재가입은 WTO 가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오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41) “И.Каримов: главный вопрос Саммита Евразес – создание в его рамках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2006.06.23.) <http://www.news.tj/ru/news/i-karimov-glavnyi-vopros-sammita-evrazes-sozdanie-v-ego-ramkakh-tamozhennogo-soyuza> (검색일: 2017년 11월 20일)

142) Аркадий Дубнов, “Неуставные отношения” Агент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х новостей, 2006.06.26., <http://www.apn.kz/opinions/print751.htm> (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3.3. 2006-2012년 CSTO 가입 시기 및 결정적 탈퇴 원인 분석

1999-2006년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은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서 IMU 세력들과의 싸움을 벌였다. 극단주의 및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 SCO에 가입해 안보 문제를 집단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도 추진해 왔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는 우즈베키스탄의 참여가 없을 경우 중앙아시아 전지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카리모프 설득 과정을 통해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을 확보했다. 카리모프의 결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CSTO에 재가입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CST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한 비협조적인 행위 및 결정적인 탈퇴 원인을 카리모프 대통령의 환경, 위협과 이에 따른 전략과 행위를 통해 확인한다. 카리모프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국가안보와 주권의 보장이었다. 따라서 국가 주권 개입과 안보 위협이 인식되면 즉각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3.3.1. 질서 및 지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도자 인식

2006-2012년 동안의 구소련 지역 국제정치 환경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스탈린 시기에 인위적으로 나뉘어졌던 국경들로 인해 구소련 여러 국가들은 영토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다. 카라바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영토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0년에도 2번(8월, 9월) 분쟁이 발발한 바가 있다. 2008년에 조지아의 NATO 가입 준비 정책은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2008년 8월 8일 조지아와 압하지야 간 5일 동안 전쟁이 벌어져 러시아의 지원으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지역은 독립을 하게 되었다. 조지아와 국제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지아는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끊어버렸다.

중앙아시아 지역 정세도 불안정했다.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타직측의 Rogun 수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분쟁이 발발하여, 수자원 문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민족 분쟁 등으로 인해 국가들이 지역 안보와 경제 통합을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 시기에 설계된 수력발전소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건설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에 반대를 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수자원 부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카리모프가 강력히 반대했던 정책이었다.¹⁴³⁾

구소련 국가들 간의 위와 같은 분쟁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들을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으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2007년 10월 8일에 열린 EuraSec와 CSTO 두산베(Dushanbe) 정상회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대신에 CSTO 활동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¹⁴⁴⁾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의 통합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CIS와 CSTO를 통해 추진되고 있었던 활동들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회원 국가들 간의 분쟁, 러시아의 지역 영향력 강화 및 영토 분쟁 개입 정책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러시아는 경제적 통합을 위해 EuraSec를 통해 관세동맹을 체결하고자 했고, 군사적 통합을 위해 CSTO 신속대응군 형성을 추진했다. 특히 2008년 8월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후 CSTO의 군사화가 가속되었다.¹⁴⁵⁾ CSTO는 신속대응군(CRRF: Collective Rapid Reaction Force)을 빠르게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리모프는 여전히 러시아가 주도하

143) Пай раи Чоршанбиев, “Каримов еще раз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огунской ГЭС в Таджикистане” (2010.10.8.) <http://www.news.tj/ru/news/islam-karimov-eshche-raz-vystupil-protiv-vstroitelstva-rogunskoi-ges-v-tadzhikistane> (검색일: 2017.12.1.)

144) Konstantin Parshin, “CIS Summit: Coming Together on Paper, still apart in practice”, (2007.10.8.)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101007b.shtml> (검색일: 2017.11.10.)

145) Irina Pop, 2009, pp. 278.

는 통합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010년 4월에 키르기스스탄에서 혁명이 일어나 정권교체가 발생했다. 카리모프는 키르기스스탄 혁명은 키르기스스탄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측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을 격려했다.¹⁴⁶⁾ 그러나 혁명에 이어 2010년 6월에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도시 오쉬(Osh)에서 키르기스와 우즈벡 민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오쉬 인구의 50% 이상은 우즈벡 사람들이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쉬에서 키르기스 민족이 우즈벡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폭력이 이루어졌다. 이 사태의 결과로 4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 75%로는 우즈벡인들이었다.¹⁴⁷⁾ 약 75,000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왔다. 이 사건에 우즈베키스탄측은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우즈벡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사태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사회는 분쟁의 한 당사자로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당사자인 우즈벡인들을 타자화하거나 했다.¹⁴⁸⁾

그 당시 키르기스 정부는 CSTO 세력들의 개입을 요청한 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0년 12월 10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CSTO 정상회담에서 키르기스스탄 사건과 CSTO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6월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CSTO는 CIS 외부 위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신속대응군 형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CSTO가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막기 위해 국내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146) Ислам Каримов, *По пути преодол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мирового кризис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и достижения уровня развитых государств*.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10), p. 231.

147) “Все боятся повторения тех событий”, (2015.6.11.), <https://lenta.ru/articles/2015/06/11/osh/> (검색일: 2017.11.25.)

148) 김태연, “2010년 오쉬 사태 이후 키르기스 국가와 사회의 반응을 통해 본 키르기스 민족주의”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 (여름 2016) pp. 203~247.

때문이다.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누군지 먼저 확인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⁴⁹⁾

“키르기스스탄 오쉬 사태가 발생 당시 나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키르기스 영토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했다. 만약에 사건 당시에 우즈베크이나 카자흐나 러시아 군이 개입을 했으면 문제가 커지고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CIS 지역에서 영토 분쟁, 민족 간의 갈등 같은 문제들이 많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CSTO 규범에 동의하지 않았고 CSTO 평화유지 세력 제안서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유지 활동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영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¹⁵⁰⁾.

위와 같이 카리모프 대통령은 CSTO와 신속대응군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으며, CSTO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에 의문을 남겼다.

3.3.2. CSTO 신속대응군에 대한 지도자의 위협인식

2006-2012년 동안 카리모프는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평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또한, CSTO의 군사화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카리모프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지역 안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프가니스탄을 통한 경제관계 및 무역 루트를 형성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양을 연결하기 위한 좋은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08년 4월 2-4일 부하레스트(Bucharest)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한 6+2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다.¹⁵¹⁾

149)Ислам Каримов, 2011, pp. 134-135.

150)Ислам Каримов, 2011, pp. 137-139.

151)Петр Гончаров, “Каримов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НАТО в Афганистане” (2008.04.07.), <https://ria.ru/analytics/20080407/103915182.html> (검색일: 2017.11.10.)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1997-2001년 UN의 후원으로 활동했던 6+2 그룹에 속한 아프가니스탄 주변 국가들과 미국+러시아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 그룹의 회담을 6+3으로 변환시켜서 NATO의 참여도 포함시켜야 한다.”¹⁵²⁾

카리모프는 러시아의 경제적 및 군사적 영향력 강화로 인해 발생했던 동맹국들의 선택권 침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카리모프는 EuraSec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관세동맹 가입 과정에 압박을 받아 EuraSec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는 EuraSec 탈퇴의 원인으로 관세동맹 가입 절차에서 회원 국가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카리모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EuraSec 회원국들은 관세동맹 가입이 각국의 국익 및 목표 고려와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각 국가의 독립적인 선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WTO에 가입할 때 회원국들은 각국의 목적과 이익을 고려하는데 EuraSec을 통해 구축하려고 하는 관세동맹은 그렇지 않다는 한계를 보인다.”¹⁵³⁾

2009년 2월에 열린 CSTO 정상회담에서 CSTO 신속대응군의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협의되었다. 러시아 대통령은 “신속대응군은 NATO와 같은 종류의 훈련 부대를 형성할 것이다.”¹⁵⁴⁾ 라고 발언했다. 표면상 러시아와 CIS 국가들은 이 군대가 NATO와의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NATO의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따라서 동 정상회담에도 CSTO 회원국들 간의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통합적인 부대의 형성은 각 국가가 군사력 지원을 하여 이루어지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카자흐스

152) Ислам Каримов, *По пут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08(b)), pp. 243-244.

153) “Узбекистан вышел из ЕврАзЭС из-за сомнений в его эффективности”, (2008.11.11.) <https://ria.ru/politics/20081113/154962672.html> (검색일: 2017.11.10.)

154)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ов ОДКБ и ЕврАзЭС, (2009)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3057> (검색일: 2017.11.25.)

탄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될 새로운 부대가 어떠한 법률과 원칙을 따르지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신속대응군의 개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신설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상황마다 정치적으로 특정한 조건 아래 CSTO 활동을 위한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었다.¹⁵⁵⁾ 카리모프 대통령이 신속대응군의 형성을 반대했던 이유는 신속대응군이 작동하는 원칙과 법률이 불분명하고, 또한 각 국가가 군사적 지원과 군사력을 제공하려면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리모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이 군대에 각국마다 균등한 수준의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⁵⁶⁾ 결과적으로 2009년 6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CSTO 정상회담에서 신속대응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벨라루스가 동 협정에 러시아의 경제적 제재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고 아르메니아도 확실하지 않은 입장을 밝혔다. 우즈베키스탄도 CSTO의 향후 활동에서 제한적 참여를 선언하여 신속대응군의 형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신속대응군이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CSTO 회원국인 구소련 국가들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신속대응군이 형성된 이후 즉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신속대응군의 군사기지 설치를 계획했다. 새로운 군사기지는 미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 CSTO 신속대응군 기지를 배치하려고 협의를 시작했다. 여러 러시아 학자들은 키르기스에서의 군사기지 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¹⁵⁷⁾ 그것이 페르

155) Roger Mc.Dermott, "Tashkent and Dushanbe Cautious on CSTO Forces" *Eurasia Daily Monitor*, Vol.6:27 (2009.2.10.) <https://jamestown.org/program/tashkent-and-dushanbe-cautious-on-csto-forces/> (검색일: 2017년 11월 25일)

156) Irina Pop, 2009, pp. 278.

157) "Kyrgyzstan: Russia Seeks Second military base in Central Asian Nation, Rattling Uzbekistan," (2009.07.12.)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articles/eav071309.shtml> (검색일: 2017.11.18)

가나 계곡 지역에서 진행되는 많은 근본주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보적 위협을 크게 느낀 국가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에 러시아의 영향이 큰 몇 개의 군사기지가 있다는 것이 국가의 주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두 번째 군사기지를 키르기스스탄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지역의 군사화를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종류의 민족주의적인 대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 군사기지가 페르가나 계곡 지역에 설치되어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근본주의자들이 재등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¹⁵⁸⁾

카리모프의 CSTO 및 신속대응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학자들 중에 파르호트 톨리포프(Farkhod Tolipov)는 이 결정에 대한 8가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카리모프는 CSTO 신속대응군이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CSTO 회원국들의 국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국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외부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조건을 앞세웠다. 둘째, CIS 및 CSTO 회원국들 간의 갈등 해결에 CSTO 신속대응군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이것은 신속대응군 협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CSTO 회원국 영토 내에 군사 부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며, 국내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신속대응군 협정은 모든 회원국들의 국회에서 비준되어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¹⁵⁹⁾

158) Григорий Маслов, “Узбекистан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й базы в Киргизии” (2009.08.3.),

<https://www.infox.ru/news/23/world/politics/23973-uzbekistan-protiv-rossijskoj-bazy-v-kirgizii> (검색일: 2017.11.21.)

159) Farkhod Tolipov, “CSTO: Collective Security or Collective Confusion?”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Analyst*. Vol. 1, (2 0 0 9 . 0 9) ,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18>

위 4가지 사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카리모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항들이다. 이는 모두 신속대응군이 국가 주권과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할 수 있다는 카리모프의 인식을 따르고 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소련 국가들의 군사부대가 형성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카리모프는 신속대응군 형성에 제한적으로 동의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4가지 비공식적인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신속대응군의 형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후, 부대가 형성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카리모프의 의견이 있었다. CSTO가 신속대응군을 막 형성하는 시기에 이 지역은 아직도 정치-군사적 블록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은 외교정책에 대한 법에 따라 군사적 블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신속대응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다. 셋째, 구소련 국가들이 효과적인 집단안보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 이유로 CIS의 모든 국가들이 CSTO 회원국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카리모프가 지적했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인은, CSTO 회원국들이 잠재적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구소련 국가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CSTO는 한 국가가 CIS 회원국이고 상대 국가가 CSTO 회원국일 경우 어느 쪽을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위협에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CSTO 신속대응군 형성에 대한 카리모프의 부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속대응군 부대의 키르기스스탄 배치는 새로운 지역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했다. 2009년 6월 14일에 열린 CSTO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신속대응군 형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이 CSTO에서 체결하지 않았던 첫 협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카리모프가 독

96-analytical-articles-caci-analyst-2009-9-1-art-11896.html (검색일: 2017.11.10.)

립 이후부터 강조해 왔던 바와 같이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외부 세력들의 개입을 방지하고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이 카리모프에게 중요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카리모프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었다. 신속대응군의 형성은 여러 측면에서 카리모프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상반되었다. 이것은 카리모프가 CSTO 탈퇴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3.3.3. 지도자 위협인식을 따른 다자주의 외교전략 선택 및 CSTO 탈퇴

카리모프 대통령의 2006-2012년 언행 및 정책에서는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위해 6+2 회담을 복구시켜 지역 국가들과 강대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역 기구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서로의 정책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지역의 군사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표현하고 CSTO 신속대응군이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이었다.

카리모프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군사적 해결법은 없다고 본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프라, 사회복지 등의 경제 정책과 지원인 것이다. 카리모프는 이를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한계로 보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전체 중앙아시아 지역과 연결시키기 위해 지원을 했다.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하이라톤-마자리샤리프(Hayraton-Mazari-Sharif) 철도를 구축했다.¹⁶⁰⁾ 이 길은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에 위치한 하이라톤 시를 아프가니스탄의 마자리샤리프 시와 연결시키는 철도이다. 동 철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 구축의 1단계였다. 카리모프는 아프가니스탄이 정치

160) История <http://railway.uz/ru/gazhk/istoriya/?INVERT=Y> (검색일:2017.11.30.)

적으로 안정화되어 평화를 유지한다면 이중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도 새로운 루트를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⁶¹⁾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카리모프에게 자주적인 선택과 국가의 이익이 중요했다. EuraSec이나 CSTO에서의 활동을 통해 카리모프는 강대국에 의한 주권 침해를 염려하였고 두 기구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EuraSec과 CSTO 활동이 거의 “중복 및 중첩¹⁶²⁾”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08년 6월에 열린 CIS 정상회담에서 기구의 효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EuraSec과 CSTO의 통합을 제안했다.¹⁶³⁾ 카리모프 대통령은 CSTO 재가입을 결정한 당시에도 EuraSec과 CSTO가 상호보완적인 기구라고 한 바가 있었다.¹⁶⁴⁾ 카리모프는 EuraSec에 가입했기 때문에 CSTO도 가입하게 되었다면서 재가입을 설명했다지만 실제로 CSTO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CSTO가 실제로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신속대응군을 형성했지만 이에 대한 규범과 원칙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 군대가 우즈베키스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다.

카리모프는 CSTO 재가입 이후 기구 내 결정들을 비준하지 않았다. CSTO 활동에 대한 카리모프의 소극적 대응을 본 벨라루스 루카셴코(Lukashenko) 대통령은 2011년 10월 27일 타지키스탄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61) Виктория Панфилова, “Американская партия Ислама Каримов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10.01.29.)
http://www.ng.ru/cis/2010-01-29/1_karimov.html (검색일: 2017.11.15.)

162) Sergei Blagov, “Uzbekistan: Moscow giving Tashkent the Silent Treatment”, (2008.11.16.),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articles/eav111708.shtml> (검색일: 2017.11.20.)

163) “Каримов предлагает объединить ОДКБ и ЕврАзЭС” (2008.06.6.),
<https://news.tut.by/politics/110517.html> (검색일: 2017.11.20.)

164) “Узбекистан вернулся в ОДКБ” 24 июня, 2006.
<https://lenta.ru/news/2006/06/23/odkb/> (검색일: 2017.11.18.)

다.¹⁶⁵⁾ 그는 우즈베키스탄이 CSTO에서 추진되었던 수많은 서류들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향후에 CSTO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즈베키스탄이 CSTO에서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CSTO에서의 활동은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우즈베키스탄 없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합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단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카리모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CSTO 탈퇴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은 CSTO의 두 번째 탈퇴 원인을 신속대응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¹⁶⁶⁾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CSTO 탈퇴 원인으로 손꼽힌다.¹⁶⁷⁾ 그러나 그러한 이유에 덧붙여서 카리모프의 독립성 강화 및 국가 주권의 보전 의지가 중요했던 것이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연설과 발언을 할 때마다 언급하고 주장했던 독립성, 국가의 주권, 안보 등의 단어들은 그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카리모프는 외부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었다. 독립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다. 표면적으로 집단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CIS, EEU, CSTO 등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기구들은 강대국으로부터 주입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키르기스스탄 오쉬 사건 당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러시아와 CSTO 국가들에 개입 요청을 한 것도 카리모프로 하여금 신속대응군이 언제든지 회원국들의 국내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¹⁶⁸⁾

카리모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CSTO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15일 CSTO 창립 20주년 기념 회담이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푸

165) “Каримов обиделся на Лукашенко” (2011.12.13.)
<https://charter97.org/ru/news/2011/12/13/45710/> (검색일: 2017.11.20.)

166) Marlene Laruelle, 2012, Timothy Krambs, 2013, pp.1-26, 등

167) 강봉구, 2007, pp.47-75.

168) Ислам Каримов, 2011, pp. 137-138.

틴 대통령과 양자 협력에 관한 협의를 했고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6월 28일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CSTO 탈퇴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 카리모프가 계속해서 CSTO 활동을 의심했고 한계점을 지적해 왔기에 두 번째 탈퇴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대해 CSTO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해서 회원국 지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¹⁶⁹⁾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이 강조했던 6+3 국가 그룹 형성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연관되어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책은 CSTO의 정책과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역 안보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외교정책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익을 우선사항으로 정했던 것이었다. 이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CSTO 회원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CSTO에서 결정되었던 여러 사안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익 및 가치관과 맞지 않았다. 카리모프는 자주적으로 외교정책을 정하고 “새로운 외교정책 개념”에서 군사 블록 가입 금지를 선언한다. 그는 2012년 12월 8일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념적 원칙에 따라 군사적 갈등에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웃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한다.¹⁷⁰⁾ 카리모프는 이것으로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을 강조했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위협도 양자 간의 협력과 SCO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2년 12월에 우즈베키스탄은 CSTO를 공식적으로 탈퇴한다.

169) “Узбекистан объяснил причины выхода из ОДКБ”
<http://islamtv.ru/news-1913.html> (검색일: 2017.11.15.)

170) Ислам Каримов, *На пути решительного продолжения дальней ш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2013), pp. 54-56.

IV. CSTO 가입과 탈퇴 원인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행했던 2번의 가입과 2번의 탈퇴가 가지는 의미를 병렬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러한 가입과 탈퇴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결정되었으나, 이러한 행위들 가운데 차이점뿐만 아니라 일관되는 원칙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외교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카리모프의 언행을 중심으로 CSTO 첫 번째 가입과 탈퇴 및 두 번째 가입과 탈퇴 원인을 비교한다. 카리모프의 주된 외교적 목적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보장이었기 때문에 CSTO 가입과 탈퇴도 그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카리모프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자주 외교정책도 CSTO 가입과 탈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입을 비교해 본다. 첫 번째 가입 시기 시점은 1992년 독립 직후였으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들의 군대와 군사 인프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군대와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및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CST 체결을 제안했다. 독립 이후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카리모프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CST를 체결하여 취약했던 군사력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그 이후부터 카리모프의 자주 외교정책 3시기의 첫 번째 시기가 시작되었다.

반면, 두 번째 가입은 안보적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의 동기가 더 강했다. 1999-2006년 시기 카리모프가 인식하고 있었던 주요 위협은 테러와 극단주의였다. 카리모프는 이 시기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극단주의라는 위협을 감소시키려고 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려 했다. 이 시기에 카리모프의 주된 목표는 강대국들과의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카리모프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목했던 미국, 러시

아 등 강대국들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자주 외교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했다. 또한, 집단안보를 추구하여 SCO에 가입하고 중국과 보다 원활한 협력을 추진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자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복지 및 국민들의 윤리 교육 등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국가를 성장시키려는 시도도 했다. 경제개발 및 세계 무역체계에 들어가기 위해 통로가 될 수 있었던 WTO 가입을 위해 EuraSec에 가입하고 CSTO에 재가입했다. 안보공동체인 CSTO 가입을 연계시킨 러시아의 설득이 있었고, 우즈베키스탄은 먼저 CIS 국가들의 경제적 연합인 EuraSec에 가입을 한 뒤 CSTO와 EuraSec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언급하면서 재가입을 하였다. 이 재가입은 안보공동체를 통한 역량강화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이익 및 EuraSec이 그 당시에 추진하고 있었던 WTO 가입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첫 번째 가입 원인은 안보적 측면을 중시되나 두 번째 가입은 경제적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동시에 이 두 개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카리모프가 국가이익을 위한 자주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대국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위한 대결에서 카리모프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다. 첫 번째 가입 시기에 군사적으로 힘든 상황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소련 국가들에게 안보공동체 형성을 제안했던 점도 자주 외교의 시작점이라고 본다. 강대국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을 추구했던 카리모프의 정책도 자주 외교정책의 예시다. 1999년에 CST의 비효과적인 활동을 비판했던 카리모프의 정책, 2005년 미군 부대 철수를 요구했던 정책 등 수많은 결정과 정책들은 그가 늘 강조해 왔던 “우즈베크 민족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하지 않는다”¹⁷¹⁾라는 언행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CSTO 재가입도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고 2012년 탈퇴의 원인은 우즈베키스탄의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에

171) 카리모프 대통령의 연설과 언행에서 자주 활용되었던 발언이며, 2005년에 출판된 연설집의 제목도 동일하다.

대한 개념을 선언하여 국가의 자주 외교정책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가 되었다.

CST에서의 첫 번째 탈퇴와 CSTO에서의 두 번째 탈퇴를 비교해 보겠다. 첫 번째 탈퇴시기에 카리모프는 효과적인 집단안보기구와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필요로 했지만, 이를 제공하지 못한 CST가 카리모프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카리모프는 독립 직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위인, 티무르의 역사, 실크로드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를 알리고 이에 기초한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했다.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로 UN과 OSCE를 중요시하고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증진하려고 했다. 또한 1992-1999년을 포함한 첫 번째 시기에 카리모프는 두 가지 위협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소련의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발흥이었다. 국가 주권과 영토, 독립성의 보전이라는 주요한 목적을 위해 카리모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러시아와 양자 협력을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관계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근본주의 세력들의 이슬람 국가 구축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효과적인 안보 협력을 도모했다. 국가의 독립적인 이념을 구축함으로써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 및 종교적 근본주의 이념을 배격하고 국민들의 자주적인 윤리 교육 및 이데올로기를 세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상에 대항하는 전략을 세웠다. 주권 보전과 안보 위협은 주요 국익이었고 외교정책은 이러한 국익에 기반을 두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력이 컸기에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CST의 효과적이지 못한 활동으로 인해 카리모프는 1999년에 가입연장을 거부했다.

두 번째 탈퇴에서도 CSTO의 비효과성의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이에 덧붙여서 신속대응군의 형성으로 인한 지역 군사화 정책이 탈퇴 원인이 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위협인식은 국가 정책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06-2012년 시기 동안에도 카리모프는 아프가니

스탄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었고 문제해결을 위해 강대국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기에는 카리모프가 독립 이후부터 추구해 왔던 자주 외교정책이 보다 강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그는 CSTO의 신속대응군 형성 및 활동, 지역의 군사화를 큰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에 저항하여 CSTO를 탈퇴하였다. 카리모프는 CSTO 탈퇴를 결정한 즉시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선언하는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법률화하여, 우즈베키스탄이 어느 한 국가에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두 번의 탈퇴의 원인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카리모프의 자주 외교정책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탈퇴 모두가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외교정책을 정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카리모프 대통령의 시기별 인식 및 분석

질문	대상	1992-1999년	1999-2006년	2006-2012
1	국제질서	- 다극체제	- 다극질서	- 강대국 패권주의
2	불안정성의 기원	- 테러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 테러와의 전쟁	- 구소련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NATO 군 철수
3	주요 행위자	- UN, OSCE, 미국, NATO	- 미국, UN, NATO, OSCE, 러시아	- UN, SCO
	국가 이미지	- 위대한 역사가 있는 문명 국가 - 국민윤리 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문명	- 테러와의 전쟁에 기여하고 희생하는 국가 이미지	- 다자주의 외교정책 추진 - 자주적 외교정책 선택
4	적과 위협	- 소련의 부활	- 극단주의 이슬람,	- 아프가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주의 이슬람 - 공산주의 이념 	테러	<p>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RF 신속대응군 형성 및 군사 배치 - 지역적 군사화, 블록화
5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합 구축 - 군사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대국들과의 양자 협력 - SCO와 안보 공동체 형성 - 경제 및 군사개혁 - 국민 윤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간 문제 6+3 회담 복구 - CRRF 형성으로 인한 CSTO 탈퇴
6	영향력/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위치

〈표 5〉 카리모프 인식에 따른 시기별 CSTO 가입과 탈퇴 원인

시기	I 시기	II 시기	III 시기	IV 시기
년도	1991년 가입	1999년 탈퇴	2006년 재가입	2012년 탈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 및 군사력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T 효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상황 개선 - 러시아의 전략적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대응군 창설 - 군사블록 가입하지 않는 다자주의 외교
구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 붕괴 이후 군대와 군사력 미비로 안보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타슈켄트 극단주의 테러 사건 이후 CST의 無조치 - 조약 활동에 대한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을 위한 EuraSec 가입 - E E U 와 CSTO의 연관성을 강조한 러시아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대응군 규범에 대한 반대 및 신속대응군 창설로 인한 위협 (CRRF vs NATO 대결)

		하락 - 소련 재건에 대한 위협 인식	의 지속적인 설득	에 대한 우려) - C S T O 의 군사적 블록화 비판 및 탈퇴
--	--	----------------------------	--------------	---

V. 결론

본 연구는 1991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부터 2012년 CSTO 마지막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 과정 및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가 펼친 자주 외교정책을 그의 언행 내용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인식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최종 정책결정자인 카리모프 대통령의 CSTO 가입과 탈퇴시기를 3 시기로 나누어서(I 시기 1992-1999: CST 최초 가입 및 탈퇴, II 시기 1999-2006년: CSTO 재가입, III 시기 2006- 2012년: CSTO 재탈퇴) 대통령의 시기별 환경에 대한 인식과 위협에 대한, 자국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인식 및 인식에 따른 행위와 전략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대통령의 발언과 연설문, 인터뷰 내용 분석을 진행했다. 발언 내용 분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 변화에 있어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했다.

2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외교정책의 주요 개념과 원칙을 살펴보았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에 처음으로 외교정책과 외교노선을 구축했다. 외교정책에 대한 법령이 1996년에 선포되었고 2012년에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했던 우즈베키스탄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인 CSTO 가입과 탈퇴를 분석하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군대와 안보개념의 수립을 확인했다. 독립 이후에 형성되었던 군대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군사력에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3장의 1 파트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 가입과 탈퇴의 원인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본 연구의 첫 번째 시기인 1992-1999년간 카리모프의 국제 및 지역 질서, 위협, 자국의 이미지와 전략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1992년 CST 가입 원인과 1999년 탈퇴 원인을 확인했다. 소련 해체 이후의 군사적 취약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CST에 가입했다. 그러나 동 조약의 효과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인해

카리모프 대통령은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은 극단주의 세력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위협이었다. 카리모프는 가입과 탈퇴의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주적인 성격을 보였다.

3장의 2파트에서 외교정책 변화의 두 번째 단계인 1999-2006년 시기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성전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9년 타슈켄트 테러 사건 이후에 안보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했다. 이 시기에 카리모프의 발언과 연설을 살펴보면 안보 문제와 안보 위협의 해결은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러시아 정부는 미군 철수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CSTO 가입을 원했지만 카리모프의 대답은 유보적이었다. 러시아는 6개월 간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하였고 결국 EuraSec 가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독립 이후부터 추진하였던 WTO 가입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CSTO 가입을 유도하였다. 자주적 외교정책을 지향했던 카리모프에게 이와 같은 선택은 WHO 가입이라는 구체적인 보상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2012년 탈퇴 원인과 연관되어 있다.

3장의 3파트에서 2006-2012년 사이 카리모프의 질서와 위협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따른 전략을 분석했다. 카리모프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주변국가와 러시아, 미국, NATO의 협력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NATO에 대항하기 위해 CSTO 신속대응군을 형성하려고 했으나 카리모프의 반대에 부딪혔다. 카리모프는 EuraSec의 관세동맹 가입에 대한 국가들의 독립적인 선택과 결정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동 기구를 탈퇴하였고, CSTO의 신속대응군에 관한 원칙과 기본 규칙 및 법적 기반의 부족을 이유로 신속대응군 형성에 관한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6-2012년 CSTO 재가입 시기 동안 카리모프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국가의 주권 보장이었다. 카리모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자기구는 쉽게 중앙아시아 국가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CSTO에서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 2010년 키르기스스탄 오쉬 사태에 대한 대응도 동 기구의 역할 대한 의심을 키웠고, CSTO 군사기지의

키르기스스탄 배치는 우즈베키스탄 주권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카리모프는 CSTO 탈퇴를 선택했고 자주적인 다자주의 외교정책 개념과 새로운 원칙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카리모프는 2012년 CSTO 탈퇴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가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하려고 했다.

본 논문의 4장에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CSTO 가입과 탈퇴 원인을 비교분석한다. 그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입의 원인은 다르지만 첫 번째 탈퇴와 두 번째 탈퇴의 원인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이 네 국면에서 일관적으로 카리모프가 자주 외교정책을 펼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즈베키스탄이 자주적인 정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본 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약소국이며 지역적 차원에서 중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 변화과정 및 외교정책의 특징을 확인했다. 조건에 따라 수동적이었다가 외부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능동성을 보여주는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정책은 중견국 외교 혹은, 약소국 외교정책 분석에도 충분한 함의를 가져다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사용되었던 자료가 카리모프의 연설문 및 언행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한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 좀 더 다각적으로 외교정책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및 그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러시아어 자료

Договор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1992,
http://www.odkb-csto.org/documents/detail.php?ELEMENT_ID=126 (검색일: 2017.9.15.)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сновных Принципа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1996. 12.26.
http://lex.uz/pages/GetAct.aspx?lact_id=39322 (검색
일: 2017.10.15.)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1992.12.08,
http://lex.uz/pages/GetAct.aspx?lact_id=35869 (검색
일: 2017.11.10.)

Концеп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2008.
<http://www.evrases.com/docs/view/88> (검색일:
2017.11.20.)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ов ОДКБ и ЕврАзЭС,
2009.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3057> (검
색일: 2017.11.25.)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2001. “Выступление в Бундестаге
ФРГ.”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340> (검
색일: 2017.11.15.)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и Каримов Ислам Абдуганиевич. 2006. “Начало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Узбекистана Исламом Каримовы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8> (검
색일: 2017.11.18.)

- Каримов, Ислам Абдуганиевич. 1992. *Узбекистан: свой путь обновления и прогресс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5. *Узбекистан по пути углуб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6(a). *Родина – священна для каждого*.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6(b). *Наша цель свободная и процветающая Родин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6(c). *По пути созидан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7(a). *Узбекистан на пороге XXI века: угрозы безопасности, условия и гарантии прогресс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7(b). *Мыслить и работать по новому требованию времен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8(a).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8(b). *Без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нет будущего*.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8(c). *Идеология – это объединяющий флаг нации, обще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8(d). *По пу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9(a). *Узбекистан, устремленный в XXI век*.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1999(b). *Свое будущее мы строим своими рукам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0. *Наша высшая цель –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процветание*

- ие Родины, свобода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народ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1(a). *За процветание Родины – каждый из нас в ответе.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1(b). *Узбекистан на пороге достиж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2(a).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углублен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сн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2(b).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мир надо бороться.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3. *Избранный нами путь – это пут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рогрессивным миром.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4. *Мирная жизн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страны зависят от единства и твердой воли нашего народ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5(a). *Наша цель –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и обновление общества, модернизация и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страны.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5(b). *Узбекский народ никогда и ни от кого не будет зависеть.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6. *Человек, его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 высшая ценность.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7(a). *Прогресс страны и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шего народа – конечная цель все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обновлен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7(b). *Либерализация общества, углубление реформ, повышение духовности и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рода – критерии*

- й и цель всей наш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8(a). *Высокая духовность непобедимая сил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8(b). *По пут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9(a). *Обеспечить поступательное и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 важнейшая наша задач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09(b).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пути и меры по его преодо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10. *По пути преодол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мирового кризис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и достижения уровня развитых государств.*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11.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реформ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 основной критерий развития нашей страны.*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12. *Наш путь – углублени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реформ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13. *На пути решительного продолж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цветания и модернизации страны.* 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14. *Достижения и успехи Узбекистана –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авильности выбранного нами пути реформ.*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 _____. 2015. *Наша самая актуальная задача – не останавливаясь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поднять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начатые реформы.* Ташкент: Узбекистан

FBIS Daily Report Soviet FBIS-SOV-94-132, July 11 1994.

〈2차 자료〉

○ 한국어 자료:

- 강봉구. 2007. “우즈베키스탄 대외정책의 노선 전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슬라브학보』. Vol. 22, No.1, pp. 47-75.
- 김계동 외. 2012. 『현대외교정책론』. 국제지역연구소 연구시리즈 2.
- 김태연. 2016. “2010년 오쉬 사태 이후 키르기스 국가와 사회의 반응을 통해 본 키르기스 민족주의”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 pp. 203~247
- 김태연. 2017.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
- 브레진스키 K. 김명섭 옮김. 2000.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 성동기. 2013.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문제점, 정체성 그리고 전망.” 『슬라브학보』. Vol. 28, No.3, pp. 135-74.
- 이영형. 201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카리모프 (I.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과정, 결과, 의미.” 『중소연구』. Vol. 39, No.2, pp. 261.
- 하용출, 신범식. 2010. “탈냉전기 러시아 국제정치인식의 이론구성적 이해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Politics in Post-Soviet Russia: From a Viewpoi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Building).” 『세계지역연구논총』. Vol. 28, No.1, pp. 179.

○ 영문 자료

- Allison, Roy. 2008. “Virtual Regionalism, Regional Structures and Regime Security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 Survey*, Vol. 27, No.2, pp.185-202.
- Anceschi, Luca. 2010. "Integrating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Making: The Cases of Turkmenistan and Uzbeki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9, No.2, pp.143-58.
- Blagov, Sergei. 2006. "Uzbekistan Sets Limits for Cooperation with Russia", February 23,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02506.shtml> (검색일: 2017.11.18.)
- _____. 2008. "Uzbekistan: Moscow giving Tashkent the Silent Treatment", November 16,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article/eav111708.shtml> (검색일: 2017.11.20.)
- Bohr, Annette. 2004. "Regionalism in Central Asia: New Geopolitics, Old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Vol. 80, No.3, pp.485-502.
- Collins, Kathleen. 2009. "Economic and Security Regionalism among Patrimonial Authoritarian Regimes: The Case of Central Asia." *Europe-Asia Studies*, Vol. 61, No.2, pp.249-81.
- Cooley, Alexander. 2012. *Great Games, Local Rules : The New Great Power Contest in Central Asia*.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Dannreuther, Roland. 2001. "Can Russia Sustain Its Dominance in Central Asia?" *Security Dialogue*, Vol. 32, No.2, pp.245-58.
- Duncan, Peter Js. 2013. "Russia, Nato and the 'War on Terro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entral Asia after 11 September 2001." *Afghanistan and Central Asia: NATO's Role in Regional Security since 9/11*,

Vol. 9, No.11, pp.129-142.

- Fazendeiro, Bernardo Teles. 2012. "Uzbekistan's Suspension of CSTO Membership: Policy as Usual in Tashkent" *E-International Relations*, July 19, <http://www.e-ir.info/2012/07/19/uzbekistans-suspension-of-csto-membership-policy-as-usual-in-tashkent/> (검색일:2017.11.18.)
- _____. 2015. "Keeping Face in the Public Sphere: Recognition, Discretion and Uzbekistan'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1991 - 2006." *Central Asian Survey*, Vol.34, No.3, pp.341-356.
- _____. 2017. "Uzbekistan's Defensive Self-Reliance: Karimov's Foreign Policy Legacy." *International Affairs*, Vol. 93, No.2, 409-427.
- Fenenko, Alexey. 2013. "Prospect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STO and Nato after the End of the 'War on Terror' in Afghanistan." *NATO Science for Peace and Security Series-E: Human and Societal Dynamics*, Vol. 106, 200-214.
- Fumagalli, Matteo. 2007(a). "Alignments and Realignments in Central Asia: The Rationale and Implications of Uzbekistan's Rapprochement with Russ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8, No.3, pp. 253.
- _____. 2007(b). "Ethnicity, State Formation and Foreign Policy: Uzbekistan and 'Uzbeks Abroad'." *Central Asian Survey*, Vol. 26, No.1, pp. 105-22.
- Gleason, Gregory. 2006. "The Uzbek Expulsion U.S. Forces and in Central Asia."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3, No.2, pp. 49-60.

- Hartman, Jeffry W. 2016. *The May 2005 Andijan Uprising: What We Know*: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 Hays Jeffry “United States and Uzbekistan after September 11th” (April 2016)
<http://factsanddetails.com/central-asia/Uzbekistan/sub83f/entry-4732.html> (검색일: 2017.11.20.)
- Heathershaw, John. 2007. “Worlds Apart: The Making and Remaking of Geopolitical Space in the Us - Uzbekistani Strategic Partnership.” *Central Asian Survey*, Vol. 26, No.1, pp. 123-40.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 Samuel P. Huntington. New York: New York : Simon & Schuster.
- Jonson, Lena. 1998. *Russia and Central Asia: A New Web of Relations*: Brookings Inst Pr.
- Kazemi, Leila. 2003. “Domestic Sources of Uzbekistan’s Foreign Policy, 1991 to the Presen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6, No.2, pp. 205-16.
- Krambs, Timothy. 2013. “Central Asia and the Afghanistan Security Dilemma: Amelioration, Retrograde, or Status Quo? Central Asia’s Role in Regional Security Regarding Afghanistan after 2014.” *Connections : The Quarterly Journal*, Vol. 12, No.2, pp. 1-26.
- Eurasianet. 2009. “Kyrgyzstan: Russia seeks second military base in Central Asian Nation, Rattling Uzbekistan” 2009. July 12.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b/article/s/eav071309.shtml> (검색일: 2017.11.18.)
- Laruelle, Marlène. 2010. “Russia and Central Asia.” In *The*

- New Central Asia: The Regional Impact of International Actors*), pp. 149-75.
- _____. 2012. "Factoring the Regional Impact of Uzbekistan's Withdrawal from the CSTO." *GMF, August*, http://www.gmfus.org/wpcontent/blogs.dir/1/files_mf/1345830436_Laruelle_Uzbekistan_Aug12.pdf
- Lee, Ji-Eun, 2010(a). "Foreign Policy Formation of Authoritarian States in Central Asia since 1991: Non-Institutional Domestic Factor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국제정치논총*, Vol. 50, No.3, pp. 33-71.
- _____. 2010(b). "The Non-Institutional Factor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Uzbekistan."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3, No.2, pp. 125-141.
- Mc.Dermott, Roger. "Tashkent and Dushanbe Cautious on CSTO Forces" *Eurasia Daily Monitor*. Vol.6:27 (2 0 0 9 . 2 . 1 0 .) <https://jamestown.org/program/tashkent-and-dushanbe-cautious-on-csto-forces/> (검색일: 2017년 11월 25일)
- Mc.Glinchey, Eric. 2012. "Foreign Policy and Aging Central Asian Autocrats." *Demokratizatsiya*, Vol. 20, No.3, pp. 262-267.
- Megoran, Nick. 2004. "Revisiting the 'Pivot': The Influence of Halford Mackinder on Analysis of Uzbekistan's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70, No.4, pp. 347-58.
- Megoran, Nick. 2008. "Framing Andijon, Narrating the Nation: Islam Karimov's Account of the Events of 13 May 2005." *Central Asian Survey*, Vol. 27, No.1, pp. 15-31.

- Nikitin, Aleksandr. 2007. "Post-Soviet Military-Political Integration: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s with the EU and NATO." Paper read at The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 Pannier, Bruce. 2000. "Central Asia: Presidents Grapple with Regional Security."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April 29, <https://www.rferl.org/a/1093833.html> (검색일: 2017년 11월 14일)
- Parshin, Konstantin. 2007. "CIS Summit: Coming Together on Paper, Still Apart in Practice." *Eurasia.net*. October 8.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articles/eav101007b.shtml> (검색일: 2017.11.10.)
- Pikalov, Aleksandr. 2014. "Uzbekistan between the Great Powers: A Balancing Act or a Multi-Vectorial Approach?" *Central Asian Survey*, pp. 1-15.
- Pop, Irina Ionela. 2009. "Russia, EU, NATO,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CSTO in Central Asia."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 No.3, pp. 278.
- Rakhimov, Mirzokhid. 2007. "From Soviet Republics to Independent Countries: Challenges of Transition in Central Asia."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Vol. 6, No.1, pp. 291-312.
- _____. 2015. "Uzbekistan's Contemporary History and Foreign Affairs." *Himalayan and Central Asian Studies*, Vol. 19, No.3/4, pp. 111.
- Rywkin, Michael. 2006. "Security and Stability in Central Asia: Differing Interests and Perspectives."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8, No.3, pp. 193-217.

- Saipov, Zabikhulla S. 2012. "Factors That Influenced Uzbekistan's Decision to Pull out of the CSTO: The View from Tashkent." *Eurasia Daily Monitor*, Vol. 9, No.136, July 18, <https://jamestown.org/program/factors-that-influenced-uzbekistans-decision-to-pull-out-of-the-csto-the-view-from-tashkent/>
- _____. 2012. "New Foreign Policy Strategy Paper Codifies Uzbekistan's Reluctance toward Restrictive Alliances." *Eurasia Daily Monitor*, Vol. 9, No.153, August 10, <https://jamestown.org/program/new-foreign-policy-strategy-paper-codifies-uzbekistans-reluctance-toward-restrictive-alliances/>
- Schaefer, Robert, and Alasdair Whitney. 2015. "The Uzbek Wild Card in the New Great Game in Central Asia." *Region: Regional Studies of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Vol. 4, No.2, pp. 291-308.
- Sevim, Tugce Varol, and Alexander Rozanov. 2014. "Ups and Downs in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Towards Security Approach of Russia." *Khazar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17, No.3, pp. 18-33
- Spechler, Dina Rome, and Spechler, Martin C. 2009. "Uzbekistan among the Great Power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2, No.3, pp. 353-73.
- _____. 2010. "The Foreign Policy of Uzbekistan: Sources, Objectives and Outcomes: 1991 - 2009." *Central Asian Survey*, Vol. 29, No.2, pp. 159-70.
- Starr, S. 1996. "Making Eurasia Stable." *Foreign Affairs*, Vol. 75, No.1, pp. 80.

- _____. 2005. "A Partnership for Central Asia." *Foreign Affairs*, Vol. 84, No.4, pp. 164-78.
- Tolipov, Farkhod. 2003. "Are the Heartland and Rimland Changing in the Wake of the Operation in Afghanista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Vol. 5, https://www.ca-c.org/journal/2003/journal_eng/cac-05/12.toleng.shtml
- _____. 2005. "Central Asia as a Space, Polity, Peoples, and Fat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2 (32), http://www.ca-c.org/journal/2005/journal_eng/cac-02/12.toleng.shtml
- _____. 2006. "The Strategic Dilemma of Central Asia."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4, No.4, pp. 170-8.
- _____. 2007. "The Foreign Policy Orientations of Central Asian States: Positive and Negative Diversification." in Iwashita Akihiro (ed.) *Eager Eyes fixed on Eurasia*. Sapporo:21st Century COE Program Slavic Eurasian Studies, pp. 23-40.
- _____. 2009. "CSTO: Collective Security or Collective Confusion."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Analyst*. Vol. 1 <https://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1896-analytical-articles-caci-analyst-2009-9-1-art-11896.html> (검색일: 2017.11.10.)
- _____. 2011. "Micro-Geopolitics of Central Asia: A Uzbekistan Perspective." *Strategic Analysis*. Vol. 35, No.4, pp. 629-39.
- _____. 2012. "Uzbekistan's New Foreign Policy Concept: No Base, No Blocks but National Interests First."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Vol. 9,

<http://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2557-analytical-articles->

Tolipov, Farkhod, and Roger Mcdermott. 2003. "Uzbekistan and the US: Partners against Terrorism." *Th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 No.4, pp. 1-18.

Wodak, Ruth. 2002. "Aspect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Zeitschrift für Angewandte Linguistik*. Vol. 36, No.10, pp. 5-31.

Global fire power. 2017. "Uzbekistan Military Strength"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uzbekistan (검색일: 2017.11.8.)

○ 러시아어 자료

Беспалов, С.В. 2015.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Постсоветской Еврази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No.11 (55), pp.114-130

"Все боятся повторения тех событий", (2015.6.11.), <https://lenta.ru/articles/2015/06/11/osh/> (검색일: 2017.11.25.)

"Генералы зачастили в Ташкент." 12 июня, http://www.uzmetronom.com/2006/06/12/generali_zachastili_v_tashkent.html (검색일: 2017.11.16.)

Гончаров, П. 2008. "Каримов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НАТО в Афганистане" 4 Апреля, <https://ria.ru/analytics/20080407/103915182.html> (검색일: 2017.11.10.)

- Дубнов Аркадий , “Неуставные отношения” Агент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х новостей , 2006.06.26.
<http://www.apn.kz/opinions/print751.htm> (검색일: 2017.11.15.)
- Затулин, К. Миграция А. 1997. “СНГ: Начало Или Конец Истории. К Смене Вех.”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Содружество*. Vol. 26,
<https://zatulin.ru/sng-nachalo-ili-konec-istorii-k-smene-vex/> (검색일: 2017.11.15.)
- “И.Каримов: главный вопрос Саммита Евразес – создание в его рамках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2006.06.23.)
<http://www.news.tj/ru/news/i-karimov-glavnyi-vopros-sammita-evrazes-sozdanie-v-ego-ramkakh-tamozhennogo-soyuza> (검색일: 2017.11.20.)
- ИАЦ “КАБАР”, 2000 г. Бишкекский саммит может стать началом реши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검색일: 2017년 11월 15일)
https://www.neweurasia.info/archive/2000/ka_press/08_21_kabar-21.html
- Иванов, И. 2013. “Интересы Росси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одержание, Перспективы, Ограничители.”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Москва, No.10*, pp. 14.
- История <http://railway.uz/ru/gazhk/istoriya/?INVERT=Y> (검색일: 2017.11.30.)
- “Каримов обиделся на Лукашенко” 2011. 13 декабря.
<https://charter97.org/ru/news/2011/12/13/45710/> (검색일: 2017.11.20.)
- “Каримов предлагает объединить ОДКБ и ЕврАзЭС” 2008. 6 июня, <https://news.tut.by/politics/110517.html> (검색일: 2017.11.20.)

- Мальшкин, А. 2012. “Узбекистан второй раз выходит из ОДКБ” 28 июня, https://ria.ru/defense_safety/20120628/687288392.html (검색일: 2017.11.20.)
- Маслов, Г. 2009. “Узбекистан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й базы в Киргизии” 3 августа, <https://www.infox.ru/news/23/world/politics/23973-uzbekistan-protiv-rossijskoj-bazy-v-kirgizii> (검색일: 2017.11.21.)
- Начало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Исламом Каримовым (2006.0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8> (검색일: 2017.11.30.)
- Огурцов, М.И. 2015. *Эволюция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стратегии в России и США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на рубеже XX–XXI веков*.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 Панфилова Виктория, “Американская партия Ислама Каримова”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010.01.29.) http://www.ng.ru/cis/2010-01-29/1_karimov.html (검색일: 2017.11.15.)
- Теракты и беспорядк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1999–2005 гг. Справка (2009 май) <https://ria.ru/world/20090526/172345801.html> (검색일: 2017.11.15.)
- “Узбекистан вернулся в ОДКБ” 24 июня, 2006. <https://lenta.ru/news/2006/06/23/odkb/> (검색일: 2017.11.18.)
- “Узбекистан вышел из ЕврАзЭС из-за сомнений в его эффективности” 11 ноября, 2008. <https://ria.ru/politics/20081113/154962672.html> (검색일: 2017.11.18.)

일: 2017.11.10.)

“Узбекистан объяснил причины выхода из ОДКБ”

<http://islamtv.ru/news-1913.html> (검색일: 2017.11.15.)

Файзуллаев, Д. 2010. “Узбекистан: Новый «Дрейф» На Запад?” *ЭКО*, No.4, pp. 146-59.

Чоршанбиев, Пайрав, “Каримов еще раз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Рогунской ГЭС в Таджикистане” (2010.10.8.)

<http://www.news.tj/ru/news/islam-karimov-eshche-raz-vystupil-protiv-stroitelstva-rogunskoi-ges-v-tadzhikistane> (검색일: 2017.12.1.)

Abstract

Karimov's self-reliant foreign policy: The case of Uzbekistan's joining and withdrawal from CSTO

Yusupova Sokhiba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the spread of Islamic extremism is causing terrorism worldwide, and neither country is safe. Security in Central Asia, located between Afghanistan and the Middle East, is also an important issue. Especially, since more than 80% of the total population is Muslim, this region is relatively easy to spread Islamic extremism.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90s, Uzbekistan, which is located at the forefront of newly emerged Central Asian countries and is bordered with Afghanistan, has several times undergone extreme threats, but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security situ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Research project, which analyses the foreign policy of President Karimov in solving security problems, through

participation in collective security communities is meaningful not only for regional, but for global security issues also.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Uzbekistan 's joining and withdrawal from CSTO. It analyzes the causes of Uzbekistan's joining and leaving the same security organization twice, analyzes each joining and the timing of withdrawal in details, also compares the turning point of foreign policy and its results. The change of foreign polic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order to identify the cause of CSTO joining and withdrawal. First, the period of joining and withdrawal of 1992-1999, second, the re-entry period of 1999-2006, and third, the period of retirement from 2006-2012.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 change in Uzbekistan and the reasons of joining and leaving CSTO are confirmed by analyzing the perception of Karimov, the top policy maker.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 volatile policy associated with CSTO by analyzing his speech. In order to clarify Karimov 's decision - making process and the reasons of joining and leaving CSTO, the framework of analysis of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politics is used. This system, proposed by Yong Chool Ha and Beom Shik Shin, defines the framework of the meaning - related to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subject, and act as the basis for the interpretation and response to international phenomena recognized by specific actors.

Karimov'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understood through three types of thinking: environment, subject, and ac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in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 change, President Karimov's understanding of the order and

environment, the image formation, threats of the state, the actions and strategies is analyzed. Through this, we will look for Karimov 's foreign policy directions and the origin of a volatile policy in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nalyzed and compared by periods.

This study analyzes Karimov 's foreign policy and finds that the causes of the first and second subscriptions are different, but the causes of the first withdrawal and the second withdrawal are simila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Karimov has consistently pursued self-reliant foreign policy in these four phases consistently.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Uzbekistan made an effort to maintain its autonomous policies in relation to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plains the foreign policy change of Uzbekista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 Uzbekistan's foreign policy, which adapts to the conditions and shows its activeness while minimizing its external influence, has enough implications for the analysis of foreign policy of middle powers or developing countries.

Keywords: Central Asian security, self-reliant foreign policy, Islamic extremism, CSTO

Student number: 2015-23286